



미주장신대 공개 세미나에서 임혜빈 KCCD 회장이 강연을 펼쳤다.

## “한인여성, 한인커뮤니티 바깥에서 공동체 자원 드러내야”

“여성이 한인사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어렵다. 그러나 한인 공동체를 벗어나 주류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들도 인정한다. 주류사회는 소수인종에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자원과 자산을 드러낼 때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미주장신대 2차 공개 세미나 “21세기 이민교회와 사회, 어떤 여성 리더십을 요구하는가?”에서 ‘미주 한인교회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 임혜빈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회장의 말이다. 11일(화)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서 임 회장은 KCCD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를 놓으신듯한 단계한 단계 이끌어 가신 방식을 설명하며 백인 남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내 ‘한인’이라는 소수자 입장에서, 또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한인 여성’을 비롯한 ‘아시아인’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타계하는 방법에 대해 전했다. KCCD의 대표이자 설립자인 임 회장은 2013년 “LA에서 영감을 주는 10명의 여성”에 선정됐고 지난 11월 13일 백악관이 주최한 ‘종교계 지도자 초청 이민 개혁법 추진 관련 회의’에 아시아 대표로 참석해 박락 오

바마 대통령, 조셉 바이든 부통령에게 아시아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를 전했다. 최근 개봉된 영화 Son of God의 제작자 마크 버넷과 협력을 통해 한인들을 위한 시사회를 유치한 바 있으며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아시아인의 자원과 자산, 필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는 KCCD의 사명을 ‘한인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인 공동체가 미국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돕는 것’이라 설명하며, “Let your light shine”(마5:16), “Good News and Good Works”(눅 4:18-19)에서 영감을 받아 단체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처음부터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이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침례교단에서 성장한 그는, 교단 내에서 여성들의 놀리고 무시당하는 모습 때문에 신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신학교에 원서를 요청하는 순간 신기하게 단락된 모든 문이 열렸다. 그는 달란트의 비유를 들며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문제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여러 자료를 분석하며 지난 10년간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균적으로 미국 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소득이 적고, 싱글파더에 비해 싱글맘은 두 배로 가난하며, 기업체 내 여성의 고위직 비율, 이사회 비율은 14%, 17%에 불과하다. 하버드대에서 조사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성공할수록 주변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남성이 성공하는 경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콜럼비아 비즈니스스쿨의 연구에서, 동일한 케이스를 ‘하이드와 하워드’로 이름만 바꿔 제시했을 때, 하워드에 비해 하이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여성목회자는 1200명에 이르나 이 중 1%만 담임목사다.” 그는 아시아인(40%)의 주택 소유율이 흑인(46.3%)이나 라티노(45.7%)보다 낮고 청소년 범죄율과 가정 폭력 비율이 가장 높고 아시아인 LA 카운티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인이 미국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넓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 여성들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 한인 사회 바깥에서, 그러나 한인 공동체의 자원을 잘 드러내며 일해야 한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 한국 선교사, 171개국

### 2만여 명... 미션스쿨 810개 설립

한국선교연구원은 최근 ‘2014년 한국선교 현황 및 해외 한국계 미션스쿨 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3년 해외 파송 선교사 수(개교회 파송 제외)는 20,0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287명이 증가한 것이며, 2011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인 2.41%와 2012년 조사의 2.19%보다 감소한 것이다.

한국선교연구원의 선교사에 대한 조사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회 회원권이 있는 자, 둘째 타 문화권에서의 복음화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고정된 급여가 아닌 모금에 의존하는 재정 원칙이 있는 자, 셋째 본부(장기) 행정사역자를 인정하며, 개교회 직접 파송 독립 선교사를 제외하고, 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텐트메이커를 포함한다. 보고서는 “한국교회의 성장에 힘입어 선교사 파송 역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온 것이 불과 20년 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점점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선교단체는 모두 166개였다. 2008년 조사 당시에는 190개였으나, 2012년에는 167개, 2013년에는 166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한국선교연구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선교단체 리스트를 근거로, 통폐합·분리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리스트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한편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돼 있는 국가의 수는 171개로 집계됐다.

해외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스쿨의 수는 초등학교 106개, 중학교 55개, 대학교 44개, 신학교 389개, 직업훈련원 35개, 방과후 학교 183개로 총 810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총 264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확인지역에도 387개나 있었다.

이번 연구는 교단선교부, 선교 파송 및 지원단체들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이메일, 전화, 인터넷 설문 등으로 진행됐으며, 세계적인 선교학술지 IBMR의 2014년 4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 통일 이후 대비하는 ‘북한선교학교’ 열린다

통일 이후의 통일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세미나가 열린다.

나성영락교회와 서울영락교회는 공동주최로 오는 20일부터 22일(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나성영락교회 본당에서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하게 된다. 강사에는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양금희 교수(장신대), 하충엽 목사(전 장신대 북한선교학 교수), 김내영 장로(영락교회 시무장로), 김성이 장로(이화여대 명예교수), 김경란 권사(건국대 명예교수) 등이 나서며, 강인덕 전 장관(통일부), 동용승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가 영상강사로 참여한다. 주최측은 세미나를 통해 △참

가자들이 북한선교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발견 △북한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언어, 북한교회 이해 △통일과 및 통일의식을 가지도록 안목 구비 △북한선교의 입장을 세우는 훈련 △탈북민들이 사회 현장에서의 경험 및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남북한 통일 이후의 선교를 미리 내다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며 “북한선교에 대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터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1.5세와 2세를 위한 영어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미나 등록은 16일(일)까지이며, 웹사이트(www.youngnak.com)로 등록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50불.

문의: 323-227-1400 박창민 기자

**나라정비** ASE 유압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관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 남가주 새소망교회 1주년 감사 예배 및 사랑의 잔치



담임목사 김성민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지난 일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기초를 다지며 세워지는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잔치를 통하여 교회의 행복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부흥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4년 3월 16일(주) 오후 3시 30분  
**장 소:**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626)872-2405, (503)332-1941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 슬픔과 외로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 〈예배시간〉

주일예배:	주일	오전 10시 30분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화-금요일	오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6시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금요 청소년 예배: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저희 교회는 Montebello 백화점 맞은편 Sky Link TV 뒤편에 있습니다.

웹 페이지: www.newhopela.org  
 이메일: nhcscjason@gmail.com  
 Facebook: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새소망교회

### 일주년 기념 말씀의 잔치

2014년 3월 28-30일

- 첫 번째 모임: 3월 28일(금)오후 7시 30분
- 두 번째 모임: 3월 29일(토)오전 6시
- 세 번째 모임: 3월 29일(토)오후 7시 30분
- 네 번째 모임: 3월 30일(주)오전 10시 30분



리종기 목사

강사: 리종기 목사 (광주 빛과 사랑교회 담임)  
 주제: “새롭게 되리라”

# 풍성한 봄말씀잔치 개최한 나성영락교회

나성영락교회(김경진 목사)가 송길원 목사(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를 초청, 7일(토)부터 9일(주일)까지 “희망을 쏘아라”는 주제로 봄말씀 잔치를 열었다. 1992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모토로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를 설립한 후 22년 간 가정사역에 몸담아 온 송 목사는 3일간 ‘해피비타민’, ‘희망편지’, ‘위로’ 등 총 9개의 강의와 설교를 전했다.

둘째날 아침 송 목사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본문으로 골짜기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품격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다른 이의 자존감, 자긍심을 높여 주어야 한다며 사순절의 기간 ‘죽음’을 성찰하고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

다며 두가지 예화를 제시했다. “친구들이 약속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입구에서 할머니가 꽃을 팔면서 손녀가 아프다며 꽃 좀 사달라고 한다. 꽃을 사서 들어섰더니 친구가 그 할머니에게는 손녀가 없다고 말한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속았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뜻밖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 천만 다행이다. 아픈 손녀가 없으니 말야. 이게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영국을 떠나 보스턴으로 가던 배가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났다. 선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부인 한 사람만 평온했다.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을 때 부인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긴 한 사람이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당신은 평안해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

저는 오래전에 둘째 딸을 잃었습니다. 제 첫째 딸은 보스턴에 있습니다. 풍랑이 저희를 덮었다면 저는 그리워했던 둘째 딸을 만날 수 있고 풍랑이 빗나가면 예정대로 첫째 딸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가를 화두로 던지며,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심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요13:1)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길 요청했다. 둘째날 이사가 66장 10절~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를 물으며 강의를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인가? 어머니, 평



송길원 목사.

화, 기쁨, 소망, 사랑, 행복, 모두 그 안에 있다. 우리 입이 처음 입을 떼서 발음했던 그 무엇.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한마디.” 그는 ‘위로’를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서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진정으로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은 어떤 당위적인 훈계나 지혜로운 말이 아닌 함께 울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자살 심리학에 따르면 자기관 같이 울어 줄 사람만 있으면 절대 죽지 않으며, 죽기 전에 그런 사람을 꼭 찾는다.” 그는 창세기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못지않게 가정의 탄생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의 중요한 기능이 ‘위로’라며 위로를 주는 가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매 강의와 설교 시간마다 분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송 목사의 강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봄말씀 잔치의 기쁨을 향유했다.

주디 한 기자

## 남가주 탈북자들 “사랑 갚겠다” 선교회 조직

남가주에 거주하는 북한 동포들이 미국 사회의 약자를 섬기는 선교회를 조직해 화제다. 북한에 거주할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탈출하는 순간, 탈출한 후에도 시시각각 사선을 넘나들어야 온 탈북자들. 미국에 망명했지만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취약 계층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받아준 미국과 정착을 도와 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선교회의 이름은 엔키아 콜라보레이션(NKia Collaboration)이다. 엔키아는 North Koreans In America, 즉 미주 북한인

의 약자다. 이들은 홈리스, 양로원, 빈민, 저소득층에 나눔을 실천하고 이 사회에 북한인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일을 한다. 현재 남가주에는 약 200명의 북한 동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이민자’란 특성 외에도 탈북자란 부정적 꼬리표가 달려 남가주 한인 사회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다. 게다가 탈북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에다가 미국에서의 문화 충격까지 있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

엔키아는 북한인들에 대한 편견을 개선시키고 북한 이민자 2세대들은

탈북자란 꼬리표 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도 한다. 이 단체 측은 “우리는 북한 이민자들이 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과 친절을 되돌려 드리고자 모였다. 수많은 고비와 역경을 겪으며 미국으로 이민 온 북한 이민자들이 가족같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나누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의 회장은 2008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홍철 씨이며 총무는 사우스 베이냐눔장로교회 김영구 목사가 맡고 있다. 또 아픈간, 아이티, 네팔 등에서 선교한 경험이 있는 조승호 선교사가 간사를 맡고 있다. 김나래 기자

## 17세 남학생 “난 여성이야” 여학생 스포츠팀 가입

캘리포니아의 남녀화장실 공동사용법(AB1266)의 주민투표가 결국 무산되면서 이 지역 공립학교 학생들의 사생활과 인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지역 교육구들은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사건에 발상할 시 대처 방법 등을 각급 학교에 하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7세의 한 남학생이 자신을 여학생이라 주장하며 여학생 스포츠팀에 들어갔고 치어리더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그는 이 스포츠팀에서 여학생들과 함께 경기를 할 수 있으며 여성 화장실과 샤워실, 락커룸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 없을 뿐 아니라 제지할 경우 성소수자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남성이면 여성이라 주장하는 학생이 여성 욕망에 들어가 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도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논란에 따라, 보수층을 중심으로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이 문제를 상정해 이 법을 폐지시키자는 서명 운동이 전개됐다.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서는 50만4760개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당초 수집된 서명은 61만9387개로, 최소 서명수의 122%를 웃돌며 주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었다.

그런데 무려 13만1903개의 서명이 무료 처리되며 유효 서명은 48만7484개가 됐다. 이는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최소 서명에 1만7276개가 모자란 것이며 주민투표 상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서명 운동을 주도한 Privacy For All Students 측은 무려 13만 이상의 서명이 무료 처리된 것에 의구심을 표하며 직접 유효 서명을 확인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상태다. 오는 3월 21일까지 재검표가 이뤄지며 여기서 유효 서명 수가 채워지면 이 법은 주민투표에 상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 전망할 수 있다.

김영신 기자

## 나성순복음 실버드림대학 봄학기 개강

지난 목요일(3월 6일) 오전 나성순복음교회가 시끄러워졌다. LA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건네며 방학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이번 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수강할 것인지 이야기 하느라 여념이 없다.

전형적인 학생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백발의 학생들이다. 나성순복음교회가 정확히 2년 전, 지역사회 섬김과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개교한 실버드림대학의 2014학년도 봄학기가 개강했다.

이번 학기 등록생은 95명이다. 나성순복음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도 30%에 달하며 특히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도 많아 이 대학은 실버 세대 복음



실버드림대학 개강예배

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컴퓨터, 생활영어, 뜨개질, 영화, 건강체조, 바둑, 미술, 노래 등 다양한 수업이 마련돼 있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이 강의를 맡고 있다.

이 대학 학생 이상우 권사는 “나이가 들면 집에만 있기 쉬운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친구도 만나고 하나님의 말

씀도 들으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잘 섬기는지 그것만으로도 감동”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미수 전도사는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등에서 효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회는 담임목사님부터 전 교역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효를 실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3년 과정에 봄, 가을 학기로 나뉘며 매학기 종강학예회가 있고 올해 말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 문의: 323-913-4499 김준형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감사한인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로 장립**

박리치 안수집사, 최알렉스 안수집사, 허장원 안수집사

**권사취임(24명)**

권성혜 집사, 김선경A 집사, 김효순 집사, 김희숙 집사, 박경희 집사, 석미선 집사, 안경리 집사, 안정식 집사, 오미선 집사, 원경미 집사, 유재정 집사, 윤경윤 집사, 윤영희 집사, 윤운호 집사, 이갑순 집사, 이숙 집사, 이용옥 집사, 전영민 집사, 정정숙 집사, 정지나 집사, 한경하 집사, 한미령 집사, 허태순 집사, 홍효청 집사

**안수집사 임직 (14명)**

고명훈 집사, 광익동 집사, 김광호 집사, 김데이빗 집사, 노춘근 집사, 박근영 집사, 박성용 집사, 배현호 집사, 백선우 집사, 임창로 집사, 장호석 집사, 전봉구 집사, Min Song 집사, Paul B, Kim 집사

일시: 2014년 3월 16일(주일) 오후 3:30

**THANKSGIVING CHURCH**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www.thanksgivingchurch.com

**(714)521.0991**

담당목사: 김영길



# 정점에 섰을 때 찾아온 우울증 음악이 한 줄기 위로의 빛 비추다

###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의 힐링콘서트, 기아대책기구와 갈보리 크리스천스쿨 지원 위해 열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햇빛이 싫었다. 햇빛이 들어오면 새로운 하루가 왔다는 증진대 새로운 하루가 와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게 싫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커튼을 쳐 놓았다. 그렇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 안되는 날. 어떤 위로의 말도 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때, 엄청난 위로가 멜로디를 타고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방구석에 처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위해 두 눈이 짓이겨 질 정도로 울며 기도하던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엄마가 기도하다 지쳐 흥얼거리던 가스펠의 멜로디를 타고 백 마디 말이, 천 마디 말이 할 수 없던 엄청난 위로가 내 안에 흡수됐다. 어떤 세상적 능력으로도 도무지 뚫을 수 없던 닫힌 마음이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지난 9일(주일) 오후 4시 갈보리민음교회(강진웅 목사)에는 천 여명의 청중이 숨을 죽인 가운데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비발디 사계 여름악장의 현란한 연주가 본당을 가득 채웠다. 미주 기아대책기구와 갈보리 크리스천스쿨 지원을 위한 힐링콘서트 자리에 선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의 입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우울증 잡는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수식어와 어울리지 않는 짙은 어둠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독일 마인츠에서 태어나 14세에 독일 카를스루 국립음대에 입학, 독일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2002년, 2003년 2회 연속 1등으로 수상한 박지혜는 2003년 독일 정부 예술부 장학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세계 3대 바이올린으로 꼽히는 1735년산 “페투루스 과르니에리”를 지원받았다. 독일 총연방 오디션에서 1등을 해야 1년 간 이 바이올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현재는 한 복지가의 도움으로 자신이 싫다고 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지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때를 회상했다.

“제가 바이올린을 하고, 독일에서 자랐다고 해서 제가 부유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지내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바이올린을 할 수 있던 것은 가정환경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던 유일한 사교육이 바이올린이었다. 독일 정부가 주최하는 오디션에서 1등을 하면 독일의 국보급 바이올린을 1년 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이 바이올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고 치열하게 연습했다.”



갈보리민음교회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이후 ‘라인란트팔츠주 음악을 이끌 어갈 주역’에 뽑히고, R 에네스쿠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등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검증받고 신예로 떠올랐으나, 그 정점에 섰을 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다고 고백했다.

“제가 연주하는 Amazing Grace는 감사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되지 않은, 해석되기 어려운 게 많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길 간절히 바랬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서 영향을 끼치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다. 그랬던 제가 나

‘달 달 무슨 달’ 등 친근하고 익숙하고 친근한 한국곡을 경쾌하고 발랄하게 연주했다.

중앙일보에서 주최하고 해피빌리지와 갈보리민음교회에서 주관한 이번 힐링콘서트는 미주 기아대책기구(Food for the hungry, FHI)의 기금 모금과 코리아타운에 기독교 사립학교를 설립의 지원을 위해 열렸다.

강진웅牧사는 “미주지역 이민자들의 소망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LA의 공립학교는 규모에서나 학업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유대인들은 학교를 세워 후세를 키워내는 데 공동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코리아타운에 기독교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비전을 전하자 모든 목사님이 동의했다. 이는 갈보리민음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독교학교를 세워 자녀들이 자기의 은사와 역량을 발견하고,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애너하임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앤드류 김 목사(작은자 UBM교회), UBM대안학교 배혜정 교장과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기독교학교 설립을 위한 비전을 전달했다. 주디 한 기자

## 감동의 뮤지컬 <Eternal Life>, 올해 부활절에도 만난다

올해도 뮤지컬 “Eternal Life-Redemption”이 남가주 성도들을 찾아온다. 이 작품은 2012년 시작돼 매해마다 연인원 6천 5백 관객을 동원한 초대형 뮤지컬로 이민 사회에서 만나기 힘든 수준급 공연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는 이 뮤지컬은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1세대부터 2세대까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올해는 4월 11일부터 13일, 즉 고난주간부터 부활절까지 공연이 있다.

올해 공연은 초대형 3D 백그라운드 스크린이 무대 배경을 구성해 배

우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특징으로, 이민 사회에서 이런 시도는 역사상 처음이다. 또 1층과 2층으로 꾸며진 무대 위에 무려 210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것도 그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공연을 준비하는 창조문화선교단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남가주 지역의 10여 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배우와 스태프로 구성돼 있고 11년 역사를 갖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복음성가 가수 박선영 자매(간음녀 역), 성악가 권상욱 전도사(미가엘 역), CCM 신인가수 한준수 형제(예수

역), 성악가 송민영 집사(막달라 마리아 역), 성악가 김효기 집사(가브리엘 천사 역), 성악가 정성혜 사모(마리아 역) 등이 출연해 성악, CCM, 복음성가 등 장르를 넘나드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뮤지컬 <Eternal Life>는 김현철 감독이 극본과 가사를 썼으며, 정봉화 작곡가가 30곡 전곡을 작곡했다. 티켓은 10달러이며 LA에서는 조이기독백화점, LA기독서적센터, 세리토스에서는 복음사, 풀러튼에서는 은혜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예매 : www.itickets.com  
▷ 문의 : 714-446-6200 김나래 기자



뮤지컬 <Eternal Life-Redemption>의 한 장면.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정하게 웃음으로 사랑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LA 한남체인내 **건강제품코너**  
인터엔이 직접 캔 **천종야생 산삼**  
매실, 홍삼, 비타민, 녹용, 각종 한방 농축즙  
**213)386-3585**  
www.uslahealth.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미와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Los Angeles, Lajolla, Fairfax, Wilshire, Skokie

# 시애틀 교민 사랑으로 북한 12세 고아 미국 망명 준비 중

### 재미탈북민연대 조진혜, 탈북자 망명 한반도 통일 밑거름 될 것



재미탈북민연대 대표 조진혜 씨.

지난해 연말, 북한 고아 망명을 위해 개최된 제 1회 워싱턴 주 통일음악회를 통해 12세 고아가 미국으로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 교민 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 고아들과 탈북자들을 자유세계로 데려오기 위해 마음을 모았던 통일 음악회 성금은 북한 고아 망명과 탈북자 구출, 탈북자 가정에 성탄 선물 보내기 등에 사용되어 진바 있다.

재미탈북민연대 조진혜 대표는 "워싱턴 주 통일 음악회 성금을 통해 12세 북한 고아가 미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준 시애틀 교민들에게 깊이 감사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성별과 이름을 비밀에 부치고 미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12세 고아는 어머니가 인신매매 되어 생사를 알지 못하고, 78세 된 외할머니마저 기력을 잃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12세 고아는 재미탈북민연대의 도움으로 지난 설 저녁 군인들의 수면 시간을 이용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강을 건넌고, 건강 회복을 위해 중국에서 한 달을 체류하며 요양하다가 현재는 안전지역으로 옮겨져 미국 망명을 준비

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혜 대표는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의 사랑은 한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한민족 통일과 북한 주민 인권 회복을 강조했다.

조진혜 씨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을 막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고아들의 망명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생존을 향한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국의 강제 복송은 철폐되어야 하고, 탈북자들과 특히 북한 고아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탈북 선교사 윤희은 목사는 "한반도는 이제 이산의 아픔을 씻어내고, 통일의 유산을 후대에 남겨야 한다"며 "우리 동족의 고통을 끊어내고, 북한 북을 앞당기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조진혜 씨는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미주탈북민연대를 조직해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탈북자 복송 반대, 북한 인권 회복, 탈북자 망명 등의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전하고 있다.

# 교회 떠나는 청년들? No, 예수 향해 걸어온다

### 루이 기글리오 목사, "청년들은 갈급하며, 진정한 것을 원해"

루이 기글리오와 그의 아내 실리는 1997년 2천 명의 학생들과 패션컨퍼런스를 출범해 17년 이상 백만명의 대학생이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리고, 그분께 헌신하도록 격려했다.

기글리오 부부는 매년 패션컨퍼런스를 이끌 뿐만 아니라 2008년 조지아 애틀랜타에 패션시티교회(Passion City Church)를 설립해 이끌고 있다. 기글리오씨는 지난해 인신매매를 없애고 범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깨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 전세계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엔드잇 운동(End It Movement)을 발족했다.

기글리오는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새 책을 비롯한 최근 계획과 대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밀레니얼스(Millennials, 1981년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 다수가 교회를 떠난다는 최근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요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자라온 교회를 떠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다. 레이더 망 안에 잡히지 않는 교회도 많다. 주류 교단의 교회는 조사 대상으로 삼기 쉽다. 그러나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는,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국 교회들과 새로운 운동이 많이 있다. 이 교회들엔 청년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시드니, 도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상파울루, 밴쿠버 등 세계 곳곳에서 패션행사를 치렀다. 행사를 치루는 곳마다, 청년들, 18세, 20세의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로 행사장이 가득찬다. 나는 교회가 사실 밀레니얼스 세대와 함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 단지 그것을 수량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매주 패션시티교회에서 젊은이들과 얼굴을 마주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얼굴을 본다. 그들은 전통적인 교회를 떠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완전히 예수를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CP: 프란시스코, 존 파이버, 베스 무어 등이 참여한 새 책 "패션: 영광의 밝은 빛(Passion: The Bright Light of Glory)"을 최근 발표했다.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이며 대상은 누구인가?

기글리오: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패션컨퍼런스는 1997년 이래로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대학생 연령의 청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 나이에 포함되지 않는 세대들은 패션컨퍼런스에 올 수 없어 좌절감을 느꼈다. 이는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물론 이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섬기고 영감을 불어넣고자 한, 대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CP: 설문조사 결과, 밀레니얼스 세대가 덜 신앙적이며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기글리오: 그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대 초반에는 삶에 대해 질문하기 마련이다. 나는 모든 이가 이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크리스천들, 밀레니얼스의 다수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그렇게 중

CP: 청년들이 다른 분야에서 영향력과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혹은 어떤 분야에서 그들이 더욱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나?

기글리오: 20대 때 당신은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19세, 20세 무렵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자신이 살아야 하며 시도하고, 발견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지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다. 그 과정은 보통 무언가를 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여행을 떠나고 다른 기회를 경험해 보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개입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있는 것 같다. 매 4년 마다 새로운 대학생들이 문을 통과해 가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다. 주디 한 기자

# 침례교 목회자들, 한자리 모여 회복과 만남의 시간 가져

### 동부지역 부부수련회는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려



동부지역 목회자부부수련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남침례교회연합회총회(총회장 황준석 목사)가 주최하고 목회부와 여성교회분과가 주관한 '2014년 권역별 목회자부부수련회 동부지역 수련회'가 지난 3일(월)부터 5일(수)까지 텍사스 덴톤 소재 캠프 코페스 수련회장에서 개최됐다.

'회복 그리고 만남'을 주제로 한 동부지역수련회에는 50여명의 동부지역 목회자 및 사모들이 참석했으며 필그림교회 손형식 목사가 저녁집회 강사로 나서 '영적 생활과 사역의 승

리는?', '그날의 영광을 향하여!'등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중부지역수련회는 또 지구촌교회 권석균 목사가 '하프타임 잘 보내기', 새시온침례교회 정용교 목사가 '눈으로 해를 보라', 온나라교회 정을기 목사가 '목회는 Right Track을 가고 있습니까?' 등을 주제로 특강을 전했다. 이번 수련회의 한 참석자는 "목양

현장에서 겪었던 아픔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오랜 만에 만난 동역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앞으로 남은 사역에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목회자부부수련회는 지난 2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부지역에서도 진행된 바 있으며 오는 5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는 한비전교회(담임 이요셉 목사)에서 동부지역부부수련회로 열린다.

주최 측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의 비전과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성도들, 동역자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수련회로 동역자들을 초대한다"고 초청의 말을 전했다.

동부지역수련회의 등록을 원하는 목회자는 404-202-5283(김상민 목사)로 연락하면 된다.

앤더슨 김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 교회 창립 6주년 봄말씀집회 및 임직예배

##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빌 4:8)

**장로**

한국민 이인규

**권사**

조공숙 박봉순

**봄 말씀 집회** 2014년 3월14일~16일(금~주일)  
강사: 유진소 목사 (ANC 온누리교회)

3/14(금) 저녁 7:30 기름부음 (삼상 16:1~13)  
3/15(토) 아침 6:30 신실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 (행 10:9~23)  
3/15(토) 저녁 7:30 주 안에 서라 (빌 4:1~7)  
3/16(주일) 1부 8시, 2부 11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 9:1~7)

**임직 예배** 2014년 3월 16일 (주일) 3pm

**ANC 인랜드온누리교회**  
ALL NATIONS CHURCH  
9806 Arrow Route, Rancho Cucamonga, CA 91730  
909-945-9191 \* www.ANCinland.com

# 살리시며 이끄시는 섭리

출애굽기 16: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출애굽기 16: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나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이월 십오일이라 2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손에 죽었던 좋은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4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 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 제육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관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8 모세가 또 가라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가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제이월 십오일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데 짐을 챙겨놓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 끈을 졸라맨 후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제 14일 밤이 지나면 15일 되는 새벽에 애굽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월 15일에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 엘림에 도착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7군데나 머물렀다 온 것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한 훈련과정의 광야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천국에 가기위한 교회생활이 이들의 광야생활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출애굽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라와 주기만하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데 그들은 감사함보다는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게 하셔서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이며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그들을 배불리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시험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배불리게 먹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계속 감찰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고 거역하면 없애 버리십니다. 히브리서 3:17-19에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었드린 자에게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라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명하여 구름기둥 아래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 회중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생각, 말을 점검하시고 전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의

신앙 훈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닌다고 천국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도중에 생기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문 8절 하반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은 영적소망을 위한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늘나라까지 물려주실 뜻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신체의 이스라엘을 해방시킴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한 계획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확인되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은 것입니다. 영권이 회복되고나니 인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도리어 애굽 사람들이 금은패물을 손에 쥐어주며 애굽을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전에는 사람취급도 안했던 애굽인들이 그들의 신세가 비참해지면서 자신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애굽을 나가 달라고 애원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인들로 하여금 400년간의 종살이 품삯을 한꺼번에 받아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나니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 대접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과 물질 관리권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리지 않게 하시려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고센 땅을 떠날 때 입었던 옷이 40년이 지나도록 헤어지고 낡아지지도 않게 하셨으며 발이 부르짖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건전한 생각과 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시길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 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190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 현시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현 시대를 읽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론을 제시하는 교계 신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을 선보일 기독일보를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부심, 꿈과 희망이 되는 미디어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독일보를 향한 관심과 사랑,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739-0403



#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a.edu</p>	<p><b>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b></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b>호라이즌대학교</b></p> <p>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과목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 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 736-5115</p>	<p><b>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b></p> <p>TRACS 정회원 인증                  특선: Sex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 in Ministry)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Ph.D.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b></p> <p>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p>	<p><b>솔로몬대학교</b></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b>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b></p> <p>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b>미주대한신학대학</b></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b>코헨대학교 &amp; 신학대학원</b></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euniversity.ac</p>	<p><b>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b></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b>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b></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b>미주성결대학교</b></p> <p>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p>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박사

### 아담족에서 예수족으로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성경은 인류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과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아담족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예수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새로운 인류이기에 천국의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족과 예수족으로 대표되는 두 종류의 인간상(人間像)을 논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족은 아담을 머리로 하는 사망에 처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이유는 그가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러므로 온 인류의 혈통을 대표하는 조상이요 머리이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사망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족을 사망의 후손이 되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

서 진 조상과 함께 죄에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받은 아담족이 아담의 대표성에 의하여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족으로 죄 아래에 갇혔다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에게 머리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모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담족이 의와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족으로 회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자 아담 안에서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인생을 시작한 우리는 이제 승리자(Victor)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족인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하여 예수족으로 회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결단을 통하여 예수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족에서 예수족으로 호적을 옮기는 작업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며, 값없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삯이 사망이라면, 이 변화는 죄로 인한 사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아담족이 족보를 바꾸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태산자를 확보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관점 조절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LA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11시간입니다. 좁은 항공기 안에 갇혀서 11시간을 비행한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한참 왔나보다 싶는데 시계를 보면 1시간, 또 시계를 보면 1시간,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 시계를 또 봅니다. 한참 온 듯 싶은데 겨우 반박에 안났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런 겨우 반박에 안났네." 그런데 제 옆에 앉은 나이 지긋한 두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탄지 얼마나 됐지?" "벌써 반이나 왔어요."

컵 속의 물이 반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 드러나는 극과 극의 표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관점입니다. 사상이 파스칼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일에도 관점에 따라 태도와 마음과 영적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는 결코 사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 직접 제자로 부르셨던 12제자에게만 국한되는 영광스런 직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어야만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로 솔직히 고백한 것처럼 사도가 되기엔 그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전적인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감격'과 '감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비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만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십니까? 불경기에 먹고 사는 일이 힘들 때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씩니다. 이때 일꾼으로 써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일을 시작할 때는 이런 불경기에 일감을 얻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마칠 무

렵에는 일꾼들의 관점이 변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나와 일한 일꾼, 9시, 12시, 3시에 나와 일한 일꾼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이 거의 끝날 즈음에 와서 일한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그러자 일찍 나와 일한 일꾼이 불평한 것입니다. "불공평합니다. 내가 일한 시간이 열네데 거의 끝날 즈음에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페이를 받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은혜의 관점'으로 시작했으나, 서서히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관점에서 서서히 수고의 관점으로 관점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싹튼다.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결국 결과의 관건은 '관점'입니다. 성실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관점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관점조절의 실패가 결과의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관점조절이 잘 이루어지면 과도한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필수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주권자의 '맞춤상황'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관점조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담임목사 청빙

브라운스빌 한인 열린문 교회는 KAPC에 속한 장로교로서 미국 최남단 텍사스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한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 하실수 있는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 1) 정규 신학 대학원을(M,Div) 졸업하고 KAPC 에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분
- 2)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에 있는분
- 3) 미국안에 거주하시며 영주권을 소유 하신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2) 목사 안수 증명서
- 3) 신앙고백서
- 4) 최종 학력 증명서
- 5) 추천서 2통, 설교CD, DVD 2회분(6개월 이내)

#### <마감일>

2014년 3월31일

#### <보내실곳>

The Korean open door church of Brownsville 한인 열린문 교회  
주소: 409 W, 2nd St. Brownsville Tx 78520

#### <문의사항>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멜로 가능하며 서류접수도 가능 합니다.  
ddhome124@hotmail.com

**한인 열린문 교회** The Korean open door church of Brownsville  
409 W, 2nd St, Brownsville Tx 78520

### 담임목사 청빙



SAN FRANCISCO 근처에 위치한 콩코드 침례교회는 담임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A. 미 남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미국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M,Div)
- B. 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이나 가입 가능한 분 (타 교단에서 안 수 받은 목사인 경우 미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6개월 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 C. 목회경력 10년 이상이신 분(담임목사 경력 3년 이상 포함)
- D. 영어 한국어를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
- E.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 <제출서류>

- A. 본인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 B.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C. 자기 소개서 : 본인 및 사모님(신앙간증, 사회경력, 사역경력, 목회비전)
- D. 추천서 2부(동봉)
- E. 최근 6개월내 설교 DVD 2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교회 website www.ckbch.org 에서 다운 받으십시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 2014년 6월 30일  
제출처 : P.O.Box 3073 SAN RAMON CA 94583 / Att : Hong Ki Hak  
문 의 : 청빙 위원장 홍기학 안수집사(ckbch2014@yahoo.com)

**Concord Korean Baptist Church**  
5000 Hiller Lane, Martinez, CA 94553 / www.ckbch.org

### '한번 오세요' 와 '한번 가겠습니다' 의 차이는?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로 문안을 주고 받자 그곳으로 한번 놀러오란다. 내친김에 동생처럼 지내는 김 장로에게 문안했더니 "아이구 형님, 제가 금년 여름에 꼭 한번 찾아가 뵙겠습니다" 한다. 사람 사는 맛이 이런데 있는가 보다.

강박한 세상에서 나를 오라는 곳이 있으니 신바람이 나고, 또 자기의 생활에 얽매어 눈코 뜰새 없이 뛰는 세상에 별볼일 없는 나를 멀리까지 찾아 오겠다는 행복해진다. 만나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할 말 못 할 말 다 쏟아놓고 싶고 또한 그분 나름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들어주고 싶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곳에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뒷장찌개에 김치 한 가지를 곁들여 먹어도 꿀맛이고, 그 옛날 가난하고 고달팠던 시절에 죽지 않고 오뎅이처럼 살아남는 강인함이나, 오늘 미국에 와서 험하게 사는 과정을 울고 웃으며 밥을 지새우고 싶다. 문제는 내가 그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분이 내게로 오느냐이다. 우리 집으로 오면 며칠간 시간을 내고 숙식은 우리집에서 해결하고 내 자동차로 운전해서 관광을 하면 된다. 그러나 내가 집을 떠난다고 할 때는 따라오는 문제가 많다. 우선 여행

비용 문제다. 그곳까지 가는 우리 부부의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고 또한 오래간만에 가는데 빈 손으로 가겠는가! 게다가 여행은 피곤하다. 비행기가 출발 짐을 부치고 안전 검색대를 지나 탑승 구까지 가는데 고생이 좀 된다. 좁은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 고생도 되지만 내려서 짐을 찾는 일 등, 쉬운 일이 아니다. 특별히 신경 쓰이는 것은 내가 몸 담고 있는 교회. 몇 가족이 모이는데 우리 부부가 빠지면 텅 빈것 같을 것이고, 또한 더욱 나를 붙잡는 것은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놀아주는 손자 손녀들을 때 놓고 여행하는 것이 무슨 죄라도 짓는 것 같기도 하다. 더

욱이 나는 잠자리를 옮기면 제대로 못 잔다. 그래서 어디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손아랫사람이 뒷사람을 찾아가 뵙는 것이 동양의 전통이지만 지금은 어디 뒷사람 아랫사람이 따로 있는가? 찾아 갈 조건이 되면 먼저 찾아가면 된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셨다. 그분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삶에 쪼들리다 지친 사람들,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과 격리되어 외롭게 사는 사람들, 불치병으로 고통 당하는 환자들, 세상에서 천대받는 세리와 창녀, 과부와 고아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며 복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나는 다짐한다. 새로 친구를 삼는 것도 좋지만 옛 친구들을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먼저 연락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한번 놀러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하리라. 만나서 하고 싶었던 말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까무러치게 웃고 울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 앞으로 역세계 그리고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자고 새롭게 마음을 다져본다.

Established 1996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기독교의료상조회에 가입하시면 **Religious Exemption(종교 벌금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오바마케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국에 4개 뿐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벌금면제 플랜)중 하나이며, 유일한 한인 단체입니다.

▶ 기독교의료상조회(CMM) 플랜

프로그램	골드플러스	골드	실버	브론즈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 소득, 신분, 나이와 상관없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 기독교의료상조회(CMM) 플랜의 특징 및 장점

-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플랜입니다.
- 한국(선교지)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든 의사나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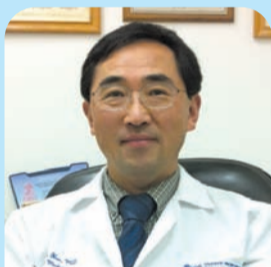
- ✓ **소득**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분
- ✓ **신분** 때문에 정부로부터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
- ✓ **신앙**적인 이유로 오바마케어 가입을 원치 않는 분

각 지역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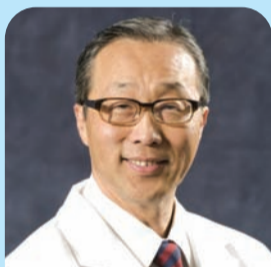
**차민영 내과**

213-480-7770  
520 S. Virgil Ave. #103, Los Angeles, CA 90020



**한경모 내과**

213-387-7800  
2681 W. Olympic Blvd. #221 Los Angeles, CA 90006



**조지인 가정주치의**

213-380-8202  
500 S. Virgil Ave. #501 Los Angeles, CA 90020



**강수웅 내과**

562-868-6256  
11832 Rosecrans Ave. #127 Norwalk, CA 90650



**백성렬 내과**

909-839-0455  
20627 Golden Springs Dr. #2D Diamond Bar, CA 91789



**오문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949-552-8217  
3500 Barranca Pkwy. #330 Irvine, CA 92606



**조섭 메디칼 그룹**

714-739-4325  
626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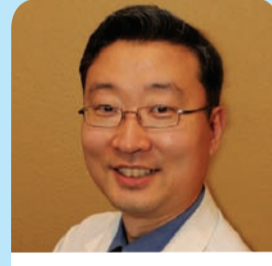
**이선우 류마티스 내과  
이호랑 위장내과**

323-938-0006  
4465 Wilshire Blvd. #303 Los Angeles, CA 90010



**안우성 내과**

562-916-5020  
20145 S. Pioneer Blvd. Lakewood, CA 90715



**유원계 위장내과**

714-937-9400  
230 S. Main St. Orange, CA 92868

**차할리우드 장로병원은 한인 사회와 기독교의료상조회 회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CMA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차할리우드 장로병원은**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더 나은 경험을 드립니다.

**434베드 규모의 최초 한인 운영 종합병원!**

- 한국 CHA 병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시설 및 장비를 보유
- 분야별 최고 권위의 한인 전문의
- 아시안 환자 전문 병동 및 다수의 한인 간호사 상주

888-522-3455 (대표전화) 323-913-4900 (한국어 안내)

1300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27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www.christianmutual.org  
 CHRISTIAN MUTUAL MED-AID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가입문의

# 213-986-8119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의료비분담사역) 단체입니다.

# 한국 사회 자살률, '무한경쟁의 톱니바퀴에 끼어 죽는' 행복하지 않은 사회 '방증'

## 기독교학술원 제36회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 '자살 대책과 한국교회' 주제로 개최

자살 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모순이 총체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비롯된 최종적 산물'이라며 현재 한국사회를 날카롭게 진단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살 대책과 한국교회'라는 주제의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제36회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에서 광혜원 박사(21세기교회와 신학포럼 대표)는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는 유능한 사람들이 이상적 인간형으로 부각되어 성공과 출세라는 무한 경쟁의 톱니바퀴에서 뒤처진 사람을 실패자·낙오자·패배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배태된 현상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한 경쟁의 톱니바퀴에 끼어 죽거나,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한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실 실패한 사람·가난한 사람이 살아갈 존재가치를 잃어버리는 사회는 자살을 조장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는 소수의 승자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희망의 유토피아(utopia)가 되겠지만, 다수의 패자에게는 더없이 두렵고 잔인한 지옥, 디스토피아(dystopia)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무한 경쟁과 상쟁이 사회적 에토스를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도가 낮고 자살률이 높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해 보이는 성공과 자

신의 초라한 처지를 비교·경쟁하면서 질서와 분노의 마음을 키운 결과,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생활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경쟁의 강도가 낮고 사회적 실패를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대체로 사회 구성

데,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엘리트 계층의 자살사례에서 잘 드러난다"며 "결국 앞만 보고 달려온 엘리트들의 자살은 한국 사회가 치닫고 있는 성공 지향주의 및 성장 제일주의, 목표 달성주의에 대한 귀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고 했다.

OECD 국가의 연령별 표준화 자살률 통계 비교

국가	연도	자살률	국가	연도	자살률	국가	연도	자살률
한국	2012년	28.1명	프랑스	2011년	16.2명	아일랜드	2011년	11.0명
	2011년	33.3명	에스토니아	2011년	15.3명	독일	2011년	10.8명
	2010년	33.5명	폴란드	2011년	15.1명	룩셈부르크	2011년	10.4명
	2009년	33.8명	체코	2011년	14.3명	호주	2011년	10.1명
	2008년	29.0명	오스트리아	2011년	14.0명	덴마크	2011년	10.1명
	2007년	28.7명	칠레	2011년	13.3명	네덜란드	2011년	9.5명
	2006년	26.2명	미국	2011년	12.5명	포르투갈	2011년	8.5명
	2005년	29.9명	OECD 평균	2011년	12.4명	이스라엘	2011년	7.4명
	2004년	29.5명	노르웨이	2011년	12.1명	영국	2011년	6.7명
	2011년	22.8명	뉴질랜드	2011년	12.0명	스페인	2011년	6.2명
러시아	2011년	22.5명	스위스	2011년	11.9명	이탈리아	2011년	5.8명
일본	2011년	20.9명	아이슬란드	2011년	11.8명	브라질	2011년	5.4명
슬로베니아	2011년	18.6명	스웨덴	2010년	11.7명	멕시코	2011년	4.8명
벨기에	2011년	17.9명	슬로바키아	2011년	11.3명	터키	2011년	4.3명
핀란드	2011년	16.4명	캐나다	2011년	11.1명	그리스	2011년	3.1명

광혜원 박사는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15년가량 유지하고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매스컴에서는 OECD 자살률 1위가 2004~200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8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광혜원 박사

원들의 행복도가 높고 자살률이 낮은 경향이다"며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부자나 빈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에토스를 조성하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선결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덧붙여 "사실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실패자와 낙오자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불행한

또한 그는 "한국 사회 안에 팽배한 사회경제적 부정의를 철폐하고 사회 전반에 공평(公平)과 정의(正義)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편법과 불법, 불공정과 부조리가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할수록 억울함과 좌절감을 느끼며 부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생활고가 도무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못할 때 깊은 절망감 속에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아래의 공의에 관한 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성서(특히 구약성서)가 사회경제적 공평과 정의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경제적 공평과 정의는 아래의 공의가 이 세상 속에 올바르게 실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광혜원 박사는 실제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그 이듬해인 1998년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 이래로, 2003년(2002년 카드대란 다음해)과 2009년(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다음해)을 중간 분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가 거대한 자살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회가 살아가기에 매우 힘들고 버거운 사회로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도 했다. 광 박사는 "최근 한국 사회에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는데 우리 주변의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해 사이코패스나 범법범한 극악무도한 범죄들도 자행되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잔혹한 살인이 서로 맞물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남을 죽이는 반(反)생명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죽음을 기피하는 것은 인간이란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의 감정인데, 이러한 인간의 일반적 감정에 전적으로 반하는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는 그 어떠한 사유와 명분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 것이다"고 했다. 광 박사는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현세의 삶에 강한 애착을 보여 왔는데, 때로는 생명을 사랑하다 못해 현세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러한 현세의 삶에 대한 애착은 삶과 죽음에 대한 전통적 이해가 집약적으로 응집된 상징체(喪葬禮)를 위시해서 삶의 요소 요소에 대단히 적나라하게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우리 사회의 결속력이 급속도로 해체되어 가는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도 분석하며 "이는 곧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돌보지 못한 공동체의 실패를 드러내며, 어려운 중에도 자신을 붙들어줄 공동체적 사랑과 연대의 끈끈함이 존재한다면, 차마 이 세상을 그토록 속절없이 떠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서구 사회가 오랜 기간 이룩한 산업화와 근대화, 민주화를 세계사에 유례없는 빠른 속도

로 성취하여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서 삶의 의미와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 박사는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교인들의 영혼 돌봄 시스템을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적 질곡 속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어 오면서 황폐해진 우리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다"며 "현대인들의 영적·정신적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과제로 내놨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 촘촘하게 자리잡은 교회가 중심점이 되어 지역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치유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경주한다면, 높은 자살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 일환으로 지역적으로 거점교회를 정하고 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안전한 치유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 박사는 덧붙여 "그동안 개신교 신학의 역사에서 삶과 죽음은 상호적 관계로 이해되어 왔는데, 죽음의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죽은 자들, 죽음의 세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개념을 금기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죽음의 이중성·양면성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삶을 사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근고한 삶의 여정 속에서 자살의 유혹을 받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삶을 살자"고 격려했다.

또한 한국교회의 근원적 과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생명의 복음(angelium vivificans)을 선포하는 일'이라며 "생명의 파괴와 죽음과 절망이 만연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국 개신교는 창조된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자 존재의 근원인 '성령',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며 "21세기 한국 개신교는 자살의 암울한 그림자를 걷어내 생명의 기운을 확산시키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온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상아 기자

##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 멸절 위기"

칼데아 출신 가톨릭 주교가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토이네 아우도(Antoine Audo) 주교는 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멸절의 위기 가운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이웃 이라크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말했다. 아우도 주교는 "전 세계 교회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반면,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을 발견한 이곳의 많은 교회들은 폭격의 표적이 되면서 텅 비어 있다. 내가 지난 25년 동안 사제로 있어 온 알레포는 파괴됐다. 우리는 사랑과 파괴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몸과 영혼을 지치게 만든다"고 안타까워했다. 알레포에 45개 교회가 있고, 시리아가 중동 지역 기독교 최후의 근거지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떠났다. 게다가 폭탄 공격, 높은 실업률, 음식물 부족, 전력난 등이, 남아 있는 이들에게 우려를 더하고 있다. 주교는 "저격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도시 붕괴 현장.

수들과 납치범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도시 주변을 걸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알레포에서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에 두 명의 사제가 납치됐다. 그는 "사람들은 나의 안전을 염려해서 주교의 옷을 입지 말거나 아예 멀리 가서 숨으라고 조언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상황과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전 세계 내전·지배들과 연대를 위해 매일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나는 먼지와 돌무더기를 지날 때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미래를 소망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이 이 전쟁을 견뎌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초기 이민자 봉사센터

미국 생활에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미 법률센터(초기 이민자 봉사센터)에서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 세무사, 유학 전문가가 교민들을 위해  
횡수에 제한없이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이용바랍니다.

- 유학생(ESL 포함)전학 및 체류신분 변경
- 유학생의 학교생활 고민 상담(어려운점 및 문제점)
- 영주권 신청, F-1(학생), E-2(소액투자), R-1(종교)및 종교이민
- 아파트 분쟁
- 소액재판
- 민사소송
- 이혼
- 법인 설립
- 재정 보증

이민국 서류 거절시 수수료 전액을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www.migukguide.com

migukguide@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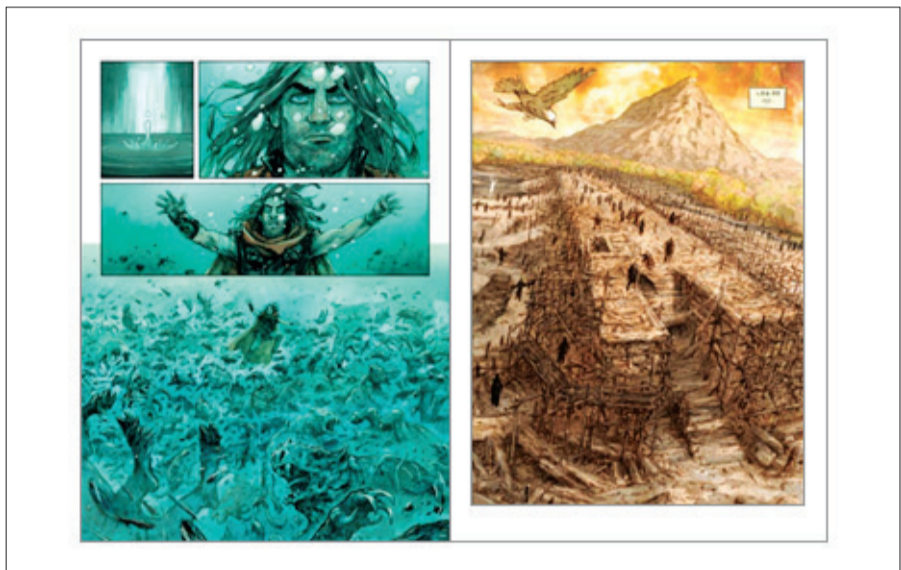
문의: 213)272-7498

130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15 (Olympic + Union에서 동쪽으로 4블럭)



영화 '노아'  
그래픽노블 작품으로 미리 보나...

주인공은 어둡고 복잡한 캐릭터로 설정



그래픽노블 '노아'. 노아는 꿈을 통해 '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는다. ©문학동네 제공

개봉을 2주 앞둔 영화 <노아>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감독의 의중을 다소나마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픽노블 <노아> 1편이 문학동네에서 출간됐다.

이 작품은 영화 <노아>의 감독인 대런 아로노프스키가 직접 스토리를 쓰고 캐나다 출신 만화가 니코 앙리송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영화의 '원작'과 같은 개념이다. 이 작품에는 홍수가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이 묘사돼 있으며, 영화 개봉(3월 20일) 후 결론이 담긴 2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블랙 스완>을 통해 '천재 감독'이라 불린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4년 전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구상했다고 한다.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열세 살 때 처음 접한 노아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됐으며, 학창 시절 열린 전국 백일장 대회에서 '노아의 눈으로 본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시'를 써서 상을 탄 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감독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출연진도 화려하다. 노아와 부인 역할에 러셀 크로우와 제니퍼 코넬리, 아들 셈과 그의 연인 일라 역에 디글러스 부스와 엠마 왓슨, 노아의 조부 브루셀라 역에 안소니 홉킨스 등이 출연한다. 원작을 통해 미리 맛본 영화 <노아>는 성경 속 '노아의 홍수'에서 모티프를 얻었을 뿐, 성경에서 '노아'를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한 마디로 완벽한 판타지물인 셈.

감독은 상상력을 동원해 노아의 캐릭터에 입체성을 부여했으며, 노아가 '의인'인 것에 대한 평가도 성경과 달라졌다. 노아는 내내 어둡고 복잡한 모습으로 등장하며, 그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나 만드는 방법 속에서

도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교훈들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신이 우리를 버린 지 오래"라고, 성경과 정반대로 말한다. 또 인간을 돕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들로 설정된 '거인 니므롯'은, 마치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을 연상시킨다. 둘째 아들 '함'은 반항아 기질이 있고, 첫째 아들 '셈'은 유약하다. '고대의 무당'을 연상시키는 조부 브루셀라도 노아의 결심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 달 말 나올 2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주 안에 숨어든 '아카드'와 노아 사이의 치열한 전투, 노아와 함 사이의 첨예한 갈등 등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래픽노블 '노아'의 출판사 측은 밝히고 있다. 또 브루셀라가 셈의 연인 '일라'에게 내린 '은총'은 40일의 홍수 속에서 노아에게 또다른 진실로 찾아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영화가 제작된 미국에서도 이를 본 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을 느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며, 이에 영화사의 압력으로 여러 형태의 결말이 시연 상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경과 똑같은 이야기라면, 그런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감독은 또 "노아는 가장 먼저 포도 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담가 마시고 취하는데, 이는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하며 "마지막 생존자로서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결말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개봉 후 완성도나 재미 등의 요소를 떠나, 스토리에서만은 크리스천들에게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웅 기자

디캡 카운티에 울려 퍼진 '어메이징 그레이스'  
서울어린이합창단원 감동의 무대 선사



조지아 주 디캡 카운티에서 극동방송 서울어린이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조지아 주 디캡 카운티에서 한국팀을 초청한 공연이 처음으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래리 존슨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와 이은자 선교사를 통해 성사된 이번 공연은 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포터 샌포드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국 민요와 찬송가, 미국 민요 등을 적절히 편곡해 영어로 선보인 극동방송 서울어린이합창단원들은 계속된 공연에도 시종 밝은 얼굴로 잦지 않은 공연을 훌륭하게 마무리 했다.

첫 무대에서 색동 한복을 입고 선보인 아름다운 부채춤 공연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합창단원들은 이후 사물놀이, 삼도 돌리기, 합창과 함께 간간히 율동, 발레 공연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지막 곡을 마친 뒤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 한 명 한 명에게 포옹을 해주며 축복을 빌어준 단원들은, 한국 관객들을 위해 '나의 살던 고향은'을 합창해 감동적인 무대를 마무리 했다.

특히, '거룩 거룩 거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God Bless America' 등 찬송곡을 카운티 행사에서 불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공연 이후 래리 존슨 커미셔너는 "정말 멋진 공연이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 오늘 공연은 맛보기였다. 내년엔 다시 초청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공연을 선보여 달라"고 감사를 전했다.

김장환 목사는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원들 대부분은 첫 미국 공연이다. 자비랑으로 건너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공연을 하면서 미국 문화를 접하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다. 한 학교에서는 공연을 보고 난 뒤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귀한 공연을 본적이 없으면서 감격하기도 했다. 한국 문화를 전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아이들 안에 자부심과 감사기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현희 기자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리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 T. (213) 383-2600 (213) 413-1600  
웹사이트: 3119W.6th. LA, CA 90020 b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서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스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3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축복과 생명의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399-7949 / www.smkc.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를 이루는 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경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박승부 장로** 1기, 2기, 3기, 4기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처리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 기구 없이 온만으로 각종 질병 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너 및 전단지)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입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에향선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mail. baacdeu@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 가정의 모습, 성경적 크라이노이, 인민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말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Contend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박부한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국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9:00 Youth  
오전 6:00(토)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인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김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LA사랑의교회**  
평안도를 배우고 이땅을 사랑하며, 이땅을 섬기며 전하는, 선교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ang.com

# 교회를 위한 선교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 (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신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합회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F. (310) 951-001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 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F.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강영석**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1:00  
성기대연합회 오전 10: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시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처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점심예배 오후 2:00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채움)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채움)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누리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움)

**최희정**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오후 12:00(반찬)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장에 이만호 목사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제39차 정기총회 신규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제39차 정기총회가 3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 Honolulu Queen Kapiolani Hotel에서 개최, 신임 총회장에 이만호 목사(순복음안디옥교회)가 임명됐다. 이만호牧사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북미총회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총회기간 이틀째였던 4일 조찬기도회에서 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는 이만호牧사를 북미총회 총회장에 임명, 준비해 온 임명장을 현장에서 수여했다.

조찬기도회 이후 열린 39차 정기총회는 총회장 인사말, 회원 점명, 개회선언, 회순 통과, 총회장 보고, 부총회장 보고, 총무 보고, 2013년도 제38차 정기총회 및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회계 보고,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 보고, 안건처리, 헌법개정, 임원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임원선출 결과 선출직 부총회장은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박광수 목사(아틀란타선교회), 주권태 목사(캐나다순복음은혜교회) 등이, 임명직 부총회장은 김용현 목사(콜롬비아순복음교회), 김수의 목사(뉴저지영산교회)가 직책을 맡게 됐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이태근 목사(분당순복음교회)와 정재우 목사(대조동순복음교회)가 감사로 나서서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목사임직식이 이어졌다. 목사임직을 받은 이들은 이진아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태준 목사(나성순복음교회) 2명이다.

임직식은 박광수 목사(부총회장)의 사회로 주권태 목사 대표기도, 윤호용 목사 성경봉독, 이장균 목사 설교, 강태욱 목사 임직선

서 및 임직자 안수, 권경환 목사 축사, 신임총회장 이만호 목사 권면, 이태준 목사 헌금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직식 이후에는 이승만대통령 기념교회인 한인기독교교회에서 저녁성회가 진행됐다. 북미총회원들뿐만 아니라 전 하와이 성도들을 위한 '하와이 축복성회'로 진행된 행사는 총회장 이만호牧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영훈 목사가 빌립보서 4:4-7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택하여 세우신 영적인 하나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주일이면 갈 길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됐는데 이는 원망하는 부정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긍정의 사람을 찾는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다. 50년 간 조용기 원로목사로부터 배운 것은 절대공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북미총회에는 눈썹푼 TATAN의 영향으로 동남부와 동중부 지역의 비행기 일부가 취소되거나 연착됐으나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牧사를 비롯, 이태근 목사(순복음분당교회), 박종선 목사(의정부순복음교회), 유재필 목사(노원순복음교회), 정재우 목사(대조동순복음교회), 이장균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부목사), 권경환 목사(시흥순복음교회), 안태경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위원장), 이희주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위원장), 임익주 장로(선교위원장), 진중섭 장로(실업인회장) 등 200여 명의 한국 순복음교회 가족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대원 기자

## 탈북전도사 "3달 동안 성경 읽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었다"



제4차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구국 연합 기도회 후 기념촬영.

지난해 5월, 서북미 워싱턴주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모임으로 출범했던 워싱턴 주 주빌리(히년)통일구국(연합)기도회가 지난 2일, 3.1절 95주년을 기념해 시애틀 온누리교회(정광호 목사)에서 제4차 통일구국 연합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권준 목사(워싱턴 주 주빌리통일기도회 회장) 사회로 탈북 신학생 김은혜 전도사가 북한의 실상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간증했다.

2011년 탈북한 김은혜 전도사는 "평양대학을 다녔고 40년 동안 북한에서 남보다 잘 살았으며, 주제 사상 속에 인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충성했으나 하나님을 알게 된 후 잘못을 깨닫고 탈북했다"고 간증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중국의 조선족 전도사로부터 2010년 하나님 복음을 듣게 됐고, 보내준 성경책과 한국어 목사님의 USB 자료를 통해 3달 동안 성경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죽기를 각오하고 믿었다"고 했다.

김은혜 전도사는 "그 후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도, 심방까지 했으며 성경책을 듣기도 하고, 목사가 되 보내준 자료가 압수되기도 했으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모면해 주었다"며 "이런 것이 들릴 경우 북한에서는 총살형"이라고 북한의 종교 탄압 실상을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의 지하성도들의 순교 도사인 '굴주립보다 더 큰 목마름'의 저자 김길남 형제가 살던 곳에서도 가봤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도사는 "책에 소개된 것들이 모두 사실이며, 저자는 이미 순교

를 각오했고 북한의 폐쇄되고 극한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증언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성경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들이 너무 편한데 신앙의 혼란조차 있었다"며 "통일은 군사, 경제,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뤄져야 하며 북한에 수많은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기도했다. 또 "3.1절 독립만세를 함께 불렀던 북한 땅에 이제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기도회는 정태근 목사, 원호 목사, 권혁부 목사가 타고코, 휘더럴웨이, 시애틀 등 각 지역을 대신해 하나님께 올리는 통일 중보기도를 했으며, 이병일 목사가 헌금기도, 축도는 황선규 목사가 했다.

시애틀비전교회 성가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통일을 염원했고, 이날 드러진 헌금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모인인 미주자유북한인연합회의 박철 회장에게 전달했다. 기도회 후, 북녘 성도들의 순교인증서인 '굴주립보다 더 큰 목마름' 개정증보판과 영문판 판매도 있었다. 이 책은 북한 지하성도 출신인 김길남 형제의 간증문을 엮어 낸 것인데 그는 출간 직전 의문사했다. 워싱턴 주 주빌리(히년)통일구국(연합)기도회는 3월(3.1절독립), 6월(6.25상기)과 8월(8.15광복절),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서 일년에 4차례 워싱턴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다.

김브라이언 기자

##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HR 1771 법안

### 패널 발표 및 촉구대회 열려



왼쪽부터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주향 차세대 간사,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듀 소장, 외교정책위원회 헌터 스트럽 아시아정책담당, 휴먼라이츠워치 소피 리차드슨 박사.

미하원 외교정책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솔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이정순) 등이 후원해 지난 3월 5일 워싱턴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 빌딩 외교정책위원회에서 HR 1771(북한인권보호를 위한 북한 경제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법안)에 대한 패널 발표 및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패널리스트들은 미국내 70여개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 250만 미주한인을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FKA), 북한인권위원회(HRNC),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등에서 참석했다.

외교정책위원회 아시아정책 담당자인 헌터 스트럽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탈북자들이 직접 증거하고 영 어자막 및 만화하고 그림으로 북한의 실태를 알리는 10분간의 동영상 상영됐다. 곧이어, 단체별로 지난 2013년 4월 발제된 HR 1771(발제자 에드 로이스 외교정책위원장)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서 인권말살의 범죄를 행한자들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HR 1771(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이아말로 그에 적절한 해결 법안이다. 또한, 북한의 말살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HR 1771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이주향 미주총연 차세대간사는 이날 유일하게 참가한 한인단체인 미주총연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에 민주주의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국땅에 이민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에 감사하며, 무차별 말살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어 HR 1771 법안을 발제한 에드 로이스 의원과 엘리엇 엔젤 의원 및 지지서명을 한 133명의 미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간사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정순 총회장의 지휘 아래 지난 2013년 10월 워싱턴DC에서 총연 임원 및 이사회를 통해 HR 1771 법안에 대해 소개하고, 300여명 이상의 하원의원에게 지지편지 보내기 운동을 했으며, 다시 2014년 5개 하위 위원회(Sub Committee)의 의장들을 방문해 지지요

청 및 나머지 하원의원들에게 후원을 재촉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지금이야말로 오바마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기본 인권 보장을 위해 더욱더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적기"임을 강조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듀 소장은 "이미 방코넬타 아시아 은행을 통해 북한금융거래를 압박했었던 2005년처럼 HR 1771 법안은 북한의 효율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이라며, "북한정부는 치밀히 조직적으로 횡포해 온 인권유린 정책을 멈추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순응해야 마땅하며, 또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말살의 개선이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기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칼라듀 소장은 "북한은 국제기구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해야 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심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소피 리처드슨 박사는 "현대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북한의 책임 처벌을 중국만이 반대한다면 중국은 모든 국제사회로부터 대단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의식있는 리더가 되려면 탈북자 강제 북송 등 인권유린을 돕는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국제 사법기관에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제기할 경우 중국이 계속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총연 관계자는 "이날 패널 발표 및 촉구대회에는 국회 각위원회 스텝들, Heritage Found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관계자들, HR 1771 법안을 작성한 자슈아 스텐튼 변호사, 탈북자 관련 단체 지도자 및 각계 언론 및 미디어 관련자들이 참석해 오늘날 지속적으로 말살되고 유린된 북한의 인권 이슈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큰 관심사인지 느낄 수 있었다"며, "미외교정책위원회 아시아정책 담당 헌터 스트럽과 북한자유연합의 수잔솔티 대표는 이 법안에 미주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후원 및 참석에 큰 찬사를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요한 기자

### 김신애 사모, 기적적으로 의식 회복해



백성인 전도사와 김신애 사모 가족.

김신애 사모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한때 '뇌사' 판정을 이야기할 정도로 절망적이던 의료진들조차 김 사모의 회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18일,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턱우 디 노스사이드병원에 입원해 4개월이던 태아를 유산하고 혼수상태에 빠졌던 김신애 사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고 호흡기 없이 호흡을 하고 있다.

3일(월)에는 2주 전에 회복했던 배를 담은 수술을 무사히 마친 상태다. 말을 하기는 힘들어 하지만 의식이 또렷해 가족과 지인들을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태로 지속적인

기도가 요청된다. 혈액순환이 여전히 잘 안돼 손과 발 끝에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위한 기도가 시급하다. 또한 몸이 너무나 쇠약해 심한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하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혈액순환이 시급히 회복되어 괴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통증을 억제할 체력이 생기도록, 아들 백성인 군이 총격 없이 엄마의 상태를 잘 받아들이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 왔다.

한편, 백성인 전도사가 재학중인 콜롬비아 신학대 학생회 측은 김 사모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시작했으며, 한인 사회 여러 기관과 단체에도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할 방침이다.

☎ 문의 : 404 - 247 - 3243 박현희 기자

###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erpe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대학생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동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청년예배 오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일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8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원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오후 12:30 (분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민재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아예배 오후 12:45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림예배 (수) 오후 7: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김심도 목사**  
과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엘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30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화-금)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엘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 인터네셔널 생방송 오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0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 (화-금) 오후 7:30  
(매일 S, D, F, Power minister)

**지사른 담임목사**

**엘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사랑으로 연합된 영혼구원과 해방을 위한 교회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인터네셔널 생방송 오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0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미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영림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구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성목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 오후 1: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45 (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시부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랑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 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 세계 최초의 캐거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Medical Product Name : Mirapharm-22**  
**FDA NDC Number : 58912-2001-1**

**Duns Number : 688502046**  
**Pin Number : cGfFh5Ec**

위 정보들은 미국 FDA로 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들로  
제품 제조허가 번호, 제품명, 국제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장 설립허가 번호들입니다.

이로써 2013년 6월 12일 미라팜-22는 100% 천연물질이면서도 식품테스트에서 안전성이  
인증되어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증서를 받았고, 그 이후 2013년 8월 1일에 미국 일반 의약품(NDC(OTC  
DRUG))으로 승인되어 OTC DRUG로서의 인증서를 받아 정식으로 미국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약품 제조허가번호와 공장 설립허가번호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까지 획득해 합법적으로 제조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 기적의 약 (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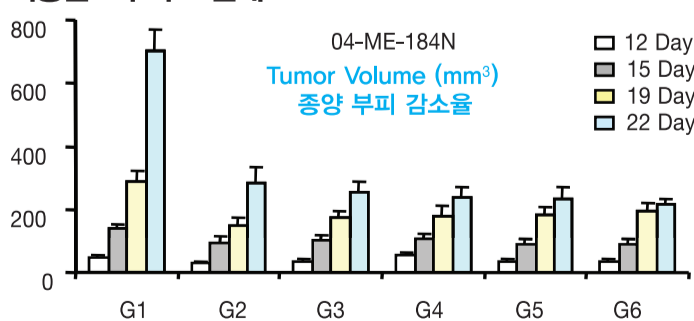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생사 기로의 한국교회, 시대 징조 바르게 해석해야”

### 은준관 박사, 강남포럼서 “부활 신앙으로 역사 변혁시킬 것” 강조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인 은준관 박사가 8일 서울 역삼동 감람교회에서 열린 강남포럼 강사로 나서, ‘오늘의 한국교회,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감람교회 담임 이기우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강남포럼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소속 목회자들의 친목 모임에서 시작된 단체로,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1월 25일부터 격주로 ‘원로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포럼을 진행 중이다. 강사로 은준관 박사, 김상복,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총장(1월 25일),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2월 8일), 전가와 전 믿음의집교회 목사(2월 22일), 은준관 실천신학대학원대 명예총장(3월 8일),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3월 22일) 등이 나서고 있다.

의식이 부족해,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은 박사는 “교회가 할 일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나누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회복해 그것으로 역사를 변혁시키는 치유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교회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며 “한국교회에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는 ‘뜨고 있는’ 교회로 갈 뻔했다가 겨우로 세속화를 거쳐, 구라파가 걸었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수정교회의 몰락과 브룩힐즈교회의 시도가 주는 교훈

이러는 박사는 미국의 상징적 두 교회를 예로 들고 그 교훈을 전했다. 하나는 로버트 솔러 목사가 설립한 수정교회로,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기존의 형식을 깬 열린예배, 솔러 목사의 탁월한 설교와 경영기법,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TV 방송 등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교회 내 갈등과 그로 인한 교인·재정 감소로 최근 파산한 데 이어 가톨릭측에 교회 건물이 매각되는 굴욕을 겪었다.

다른 하나는 「레디컬」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데이비드 플라트 목사의 브룩힐즈교회다. 플라트 목사는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지역 지하교회를 방문한 뒤, 화려한 예배당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교회에 회의를 느낀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등 모든 편의시설을 제거하고 지하에서 촛불을 켜 채 성경공부를 하는 등 ‘딤진적’ 시도들을 시작했는데, 그 때부터 그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은 박사는 “이 두 교회가 한국 교회 전반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며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해 역사를 변혁시키려는 의식 없이 기독교 왕국화되면 그 교회는 죽는다. 그러나 거대한 조직이더라도 끊임없이 신앙으로 자신을 변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는 산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지금 이 (죽고 사는) 기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목사님들의 탐욕 때문에, 성장주의·성공주의, 교회 건축 등이 지금 교회를 망치게 하고 있다”며 “목사님들끼리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목회자들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박사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교회라는 이 소중한 그릇터기마저 소멸될까 봐”라며 “제 시대는 곧 끝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21세기를 비추 만한 교회이고, 이 교회가 소멸되면 남미나 아프리카 교회에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교회가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자’인지도 모른

다”고 절박함을 이야기했다.

#### 한국교회 트렌드: 성장, 성장 이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

은 박사는 시기별로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3가지로 분석했다. 보통 미국 교회의 트렌드가 약 20년 뒤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나는 추세라고도 했다.

첫번째는 ‘교회 성장기’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시기를 거치며 개신교인이 무려 3천만명이 늘어 전체 인구의 무려 68%, 가톨릭은 23%에 육박했다. 강단에서는 반공주의와 기복주의 설교가 넘쳐났다. 기독교가 나라의 역사와 전통까지 바꿔버릴 만한 힘이 있었다. 한국도 1970~80년대 비슷한 현상을 겪고 개신교인이 1,200만에 육박하며 절정으로 치닫는다. 그런데 영유했 것만 같았던 ‘교회 성장기’가 미국에서부터 무너지고, 두번째 트렌드인 ‘교회 성장 이후기’가 온다. 이 말은 단순히 성장기 이후가 아니라, 이제 교회 성장이 끝나서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은 박사는 “히피·흑인·학생운동 등 60년대 ‘문화충격’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도자들이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오만하면서 미국 교회가 수렁에 빠졌다”며 “한국교회도 100주년을 기념했던 1985년 이후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화운동가들이 교회를 떠났고, 기업가들도 교회 밖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더 좋으니 떠났고, 교회 안에서 집사·권사 시켜주니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 밖 클럽 활동이 더 좋으니 떠났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교회 성장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했다.

세번째 트렌드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의 등장이다. 이전까지는 한국교회가 20년 주기로 미국 교회의 추세를 따라갔는데, 2010년경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현상으로 이 같은 세대가 나타났다. “교회도, 종교적 냉색이 나는 것도 싫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영적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소위 ‘가나안 신자’(‘안 나’를 겨우로 읽은 것), ‘노마드 신자’(유목민처럼 교회를 옮겨다니는 이들), ‘스타벅스 신자’(교회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상황을 보는 이들) 등도 여기에 속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2050년경 한국교회 신자 수가 300~400만으로, 교회학교 학생 수가 40만으로 줄어든다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8년경 교회 재정이 현재의 50%로 줄어든다고 예측한다.

은 박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는 대답해야 한다”며 “이러한



강연하고 있는 은준관 박사.

흐름에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냐”고 반문했다.

#### ‘코딩’과 ‘디코딩’ 맞지 않으면 영성 날수록 잘못될 수도

은 박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코딩’(Coding)과 ‘디코딩’(Decoding), 즉 이러한 시대적 징조와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성으로 교회를 망치고 젊은이들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은준관 박사는 이 같은 시대적 현상에 대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내놓고 있는 해법들로 ‘영성과도덕성 회복’, ‘민족복음화’, ‘축복성회’, ‘지역사회 봉사’, ‘선교’, ‘문화유산 지키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 소중한 것들이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딩과 디코딩이 서로 맞지 않다”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에게, 우리는 지금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은 박사는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CCM인가, 교회 건축인가, 사회사업인가.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학·제도·시설의 부재가 아니라, ‘우민목회’로 ‘영적 문맹’들을 만든 것”이라며 “우리가 신자 하나하나를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 감소 추세 역행하는 美 동방정교회의 4가지 특징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동방정교회를 하나의 대안적 모델로 제시했다. 미국 동방정교회는 러시아 출신 예배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미국 감리교회가 교인 수 1200만명에서 800만명으로 감소하는 기간 동안 반대로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증가했다.

은 박사는 미국 동방정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하나님나라를 순례하는 주일공동예배’(주일신학)다. 은 박사는 “개신교는 주일

신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데, 주일은 안식일(토요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이는 종말론적인 날이며 죽음을 겪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날”이라며 “즉 주일예배는 설교나 의식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종말론적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활과 재림 사이에 종말론적 믿음으로 사는, 쉽게 말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동방정교회는 매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교인이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고 은 박사는 역설했다. 은 박사는 “그런데 한국교회는 시간 개념부터 잘못되어, 주일만 기록하게 보내고 나머지 날들은 세속적으로 보낸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파편화된 신앙을 한다”며 “주일신학을 근본으로 하는 예배 회복,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성서연구(화요일)다. 은 박사는 “온전한 사람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배우는 자”라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이 설교(케리그마) 중심이고 그다음인 가르침(디다케)이 없다. 교인들이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과 씨름하며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는 구역·셀·속회 등과 같은 ‘신령한 교제’(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단순히 교회 성장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며, 넷째는 ‘하나님나라 증언으로서의 일터와 삶(월·토)’으로 신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다.

#### 수평이동에서 ‘살아남은 작은 교회들’ 의 3가지 특징

은 박사는 또 최근 대형교회로의 수평이동 때문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살아남은 작은 교회들’의 특징이 있었다고 했다.

》 14면에 계속

##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도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채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 PRO-Z

**신제품 소비자가공급가 \$76**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재미과학사 전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채장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채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당뇨 개선제입니다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특별 할인가

**2병 \$120**

# PCA, '조용한 15%' 한어권 회중에 대해 주목...협력방안 모색

## 교단지 'byFaith', 심수영 목사 인터뷰 통해 한인 교회 소개하고 한인들의 생각 전해



심수영 목사.

아틀란타교회 심수영 담임 목사가 미국장로회(PCA) 매거진 'byFaith'에 교단 내에 증가하고 있는 한인 교회와 한국어 회중에 대한 소개와 교단과의 협력 방안 등을 인터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세인 심수영 목사가 1997년 3월 30일, 도라빌 컴포트에서 개척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아틀란타 새교회는 현재 약 50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으며, PCA 내에서도 한어권과 영어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델로 꼽힌다.

다음은 간략한 심수영 목사와의 인터뷰.

- 원래 심수영 목사께서 개척한 교회는 독립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년 전에 PCA에 가입하셨나요?

“1992년 커버넌트세미나리를 졸업한 뒤, 저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서서히 ‘개혁(Reformed)’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저는 결국 독립 교회는 아주 건강한 모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임감이나 의무도 없고, 교제도 없었죠. 그리스도의 큰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PCA 내의 한인교회는 전체 10-15%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왜 한인 교회들은 독립교단을 만드는 대신 PCA에 가입하길 원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교단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PCA 교회가 되고 싶지, 한국에 있는 PCA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교단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다음 세대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넓은교단이 되고 싶고,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CA가 아주 건강한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

인 교회)중 많은 이들이 이 교단에 속한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라는 특별한 필요들 때문에, 우리는 (한어권을 제외한) 다른 회중들이나 교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더 나은, 더 많은 방법을 찾길 원합니다.”

-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더 창의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을 때, 많은 오해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경청하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한인 목사가 교단 행정부에서 받는 모든 자료는 영어였습니다. 거기서 분리가 생기고, 먼저는 문서들을 통해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예를 들면, 한어권 회중들도 적극적으로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협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어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총회에서는 번역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회 행정부는 이런 갭(gap) 사이에 다리를 놓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인동남부노회에서는 올해 총회를 휴스턴 메트로 노회와 함께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틀란타교회 예배 모습.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저는 미래를 매우 낙관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목자들이 한인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나 노회 교회들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 해주세요.

“우리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릅니다. 대예배는 한국어로 드리지만, 어린이 예배는 영어로 드립니다. 2부 예배는 영어로 드리며,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학 그룹도 여기 속합니다. 친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예배 이후, 우리는 함께 먹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먹어요.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노회는 또한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는 3월 노회로 모이는데, 회의 그 이상입니다. 목회자와 가족들이 만나 함께 기도하고 친교하고, 운동

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대부분은 교단의 나머지 교회들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인 교회들은 대학 사역에 매우 열심이지만, RUF(PCA의 대학사역)와는 함께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에도 관심이 큰데, MTW(PCA의 해외선교)와는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그룹들을 피한다기 보다는 단순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교단의 나머지 교회들은 한국어 회중 교회들과 이들의 문화가 PCA에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해본 모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단이며, 우리는 어디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단이 더 나아지고 경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요.”

신디 김 기자

## “내가 교제(Koinonia)하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파야”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파야 되고, 슬프면 내가 같이 울어야 돼요. 아픔과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 교제예요”

이중운 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서울교회 원로)가 5일 저녁 7시 30분 서울 광진구 중곡동 동일교회(담임 오정식 목사)의 봄 신앙사경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한 말이다.

이 박사는 “코이노니아(Koinonia)”라는 말을 ‘교제’라고 번역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제’보다는 ‘참여·동참(Participation)’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안녕하십니까? 은혜받으십시오”하는 그것도 교제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아픔과 슬픔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 교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임은 단순

한 교제는 아니다”며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지만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모인 후에는 성령이 임하셔야 하고, 그 다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다시 모이는 것. 이 서클이 계속된 것이 2000년 교회사”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 박사는 “독일의 신학자 한스 쿨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했다”며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이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고 말했다.

이어 “한스 쿨은 또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로 교회를 정의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이다”며 “당회, 총회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다. 총회도 잘못 할 수 있다. 종교개혁 때 95개조 반박문에 교황이 잘못 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중운 박사는 “세 번째 한스 쿨은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펠로우십(Fellowship)이라고 했다”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고 있다. 그것은 제가 말 수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중운 박사는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며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하는 이 가치관을 지금 소유했다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나를 위하여 산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성경적 신앙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든 예수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오상아 기자

» 13면에 이어서

첫째는 ‘코어 멤버(핵심 교인)’가 있었다는 것, 둘째는 지역의 아픔을 조명하고 그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셋째는 ‘미니멀 오퍼레이션’으로,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도 ‘거룩’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는 결론으로 한국교회와 시대의 정조를 정확히 읽는 눈을 키우고, 신자를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예배·교육·교제 등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대형교회를 모방하지 말고 색깔 있는 교회를 만들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추세대로 보면 앞으로 교인 수는 늘지 않는다. 문제는 교인 수가 줄어들더라도 그 소수의 교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나 아니냐”라고 말했다.

강연 이후 “현재 속회(감리교회에서 신도들이 구역을 나누어 모이는 기도회)가 다 형식화됐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은 박사는 “속회를 ‘교회’를 살찌게 하는 액세서리’로 만들지 말고, ‘교회’의 작은 교회’로 분리시켜 속회 자체가 하나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속회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사회와 잘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속회가 잘 되려면 목사님들이 속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속회를 인도하는 중간 지도자가 잘 훈련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속회가 살고,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했다.

류재광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인: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락,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 멩  
 교문번호: 정찬용  
 지사망: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산타페 언어·문화 교육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926.1023 | Fax 562.926.1025 | office@ptsa.edu [www.ptsa.edu](http://www.ptsa.edu)

## ESL 과정

산타페 언어·문화교육원이 속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TSA)는 가정교육국(BPPE) 인가기관, 성서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 학교로 I-20 Form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F-1 Visa를 위한 I-20 Form 정식 발급!!

- ✓ 원어민강사로만 모든 수업 진행.
- ✓ 담당 교수제를 통한 철저한 학습관리.
- ✓ 다양한 어학프로그램 및 시설.
- ✓ Conversation Partner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회화 집중 향상.
- ✓ ESL 과정 수료 우수 졸업자 Internship 소개.

● 자유로운 수업 선택 : 주간 종합반, 야간 종합반, 주중 집중 종합반, 단과반으로 구성.

★ 산타페 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은 전세계 130여 개 캠퍼스, 35,000여 명의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는 'English Miracle'의 과학적 영어어학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영어로 배우는 스페니쉬 강좌도 있습니다. 별도문의

문의 전화: 562-926-1023 Director 강우중 교수 (wj.kang@ptsa.edu)

## 8주 완성 웹사이트 제작과정

### 워드프레스보다 쉬운 XpressEngine (XE보드, 구 제로보드)

초보자도 만들수 있는 쉬운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포토샵 CS6에서 배너 만들기 제작 과정 포함!!

- ✓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용함으로써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개발에 참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을 사용하여 한국인에게 Word Press보다 훨씬 편하고 결과물이 만족스럽습니다.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편집 디자이너, 일반인 환영!!

★ 지난 1월 21일 '두 시간만에 끝내는 웹사이트 제작' 공개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 현재 3분이 공개강연만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셨습니다. 상담: mermaidk@naver.com

- Photoshop CS6 / Dreamweaver CS5 (CSS Style, HTML 코드 강화) Flash CS5 (애니메이션, 액션스크립 실행) 강좌 별도문의

상담 전화: 714-576-0901, 213-909-2371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로고스와 레마(1)

I. 들어가는 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히브리어 성경과 히랍어 성경에는 “말” 또는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다바르”(דָבַר)이고 히랍어에 있어서는 “로고스”(λόγος)이다. 그런데 인제부터인지 목사님들 가운데는 히랍어성경에서 “로고스”(λόγος)와 “레마”(ῥημα)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 의하면 “로고스”는 보통 말씀이고 “레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뜻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반대학에서 히랍철학과 히랍어를 가르쳤고, 미국에 온 후로는 신학교에서 신학과 함께 히브리어와 히랍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필자는 가끔 학생들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과연 어떤 목사님들의 주장대로 성경에서 “로고스”와 “레마”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 두 말이 과연 그런 의미로 쓰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문제가 된 “레마”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로고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별표가 붙은 구절은 두 번 나오는 경우이다.

II. 레마

- 1. 레마가 나오는 성경구절
마4:4; 12:36; 18:16; 26:75; 27:14; 막9:32; 14:72; 눅1:37,38,65; 2:15,17,19,29,50,51; 3:2; 5:5; 7:1; 9:45\*; 18:34; 20:26; 22:61; 24:8,11; 23:34; 5:47; 6:63,68; 8:20,47; 10:21; 12:47,48; 14:10; 15:7; 17:8; 행2:14; 5:20,32; 6:11,13; 10:22,37,44; 11:14,16; 13:42; 16:38; 28:25\*; 롬10:8\*,9,17,18; 고후12:4; 13:1; 엡5:26; 6:17; 히1:3; 6:5; 11:3; 12:19; 벧전1:25; 벧후6:2; 유17.
2. 레마의 의미의 구분
위의 구절들에서 “레마”가 지칭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쓰인 곳
마4:4; 눅1:37; 2:19; 3:2; 23:34; 8:47; 17:8; 엡6:17; 히1:3; 6:5; 11:3; 12:19; 벧전1:25;
2) 예수님의 말씀의 뜻으로 쓰인 곳
마26:75; 27:14; 막9:32; 14:72; 눅2:50,51; 5:5; 7:1; 9:45; 18:34; 20:26; 22:61; 24:8; 요5:47; 6:63,68; 8:20; 10:21; 12:47,48; 14:10; 15:7;

- 행11:16; 10:17; 고후12:4 엡5:26.
3) 복음의 뜻으로 쓰인 곳
행5:20,32; 10:22,37,44; 11:14; 13:42; 롬10:8,9,18.
4) 사도와 선지자의 말의 뜻으로 쓰인 곳
그 외 행26:25; 28:25에서는 “레마”가 사도바울의 말을 지칭하는데, 벧후3:2에서는 “레마”가 선지자들의 말을 지칭하는데, 그리고 유17에서는 사도들의 말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5) 인간의 말의 뜻으로 사용된 곳
마12:36; 18:16; 눅24:11; 행6:11,13; 16:38; 고후13:1.

이상의 다섯 가지 중에서 처음 네 경우에 사용된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므로 “레마”가 능력 있는 말씀의 뜻을 지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레마”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쓰인 곳은 히1:3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레마” 다음에 “능력”이라는 말이 뒤따라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5) 인간의 말의 뜻으로 사용된 곳의 경우처럼 “레마”가 사람의 말을 지칭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레마”가 좋지 않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레마”가 마12:36에서는 “무익한 말”의 뜻으로 사용되고, 눅24:11에서는 “헛소리”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행6:11에서는 “신을 모독하는 말” 즉 “불경스런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레마”가 “능력 있는 말씀”을 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로고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이다. 다시 말해 “로고스”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지칭하는데도 사용 된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지칭하는 경우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나쁜 의미로도 쓰인다. 예를 들면 딤후2:17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에서 “말”이라고 번역된 말은 “로고스”이며, 요한3서 8에서 “악한 말”에서도 “로고스”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레마”와 마찬가지로 “로고스”가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III. 로고스

- 1. 로고스가 나오는 성경구절
마5:32,37; 7:24,26,28; 8:8,16; 10:14; 12:32,36,37;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 13:19,20,21,22,23; 15:6,12,23; 18:23; 19:1,9,11,22; 21:24; 22:15,46; 24:35; 25:19; 26:1,44; 28:15; 막1:45; 2:2; 4:14,15,16,17,18,19,20,33; 5:36; 7:13,29; 8:32,38; 9:10; 10:22,24; 11:29; 12:13; 13:31; 14:39; 16:20; 눅1:2,4,20,29; 3:4; 4:22,32,36; 5:1,15; 6:47; 7:7,17; 8:11,12,13,15,21; 9:26,28,44; 10:39; 11:28; 12:10; 16:2; 20:3,20; 21:33; 22:61; 23:9; 24:17,19,44; 요1:1,14; 2:22; 4:37,39,41,50; 5:24,38; 6:60; 7:36,40; 8:31,37; 8:43,51,52,55; 10:19,35; 12:38,48; 14:23,24; 15:3,20,\*25; 17:6,14,17,20; 18:9,32; 19:8,13; 21:23; 행1:1; 2:22,40,41; 4:4,29,31; 5:5,24; 6:2,4,5,7; 7:22,29; 8:4,14,21,25; 10:29,36,44; 11:1,19,22; 12:24; 13:5,7,15,26,44,46,48,49; 14:3,12,25; 15:6,7,15,24,27,32,35,36; 16:6,32,36; 17:11,13; 18:5,11,14,15; 19:10,20,38,40; 20:2,7,24,32,35,38; 28:22; 롬3:4; 9:6,9,28; 13:9; 14:12; 15:18; 고전1:5,17,18; 2:14,13; 4:19,20; 12:8; 14:9,\*19,36; 15:2,5,4; 고후1:18; 2:17; 4:2; 5:19; 6:7; 8:7; 10:10,11; 11:6; 갈5:14; 6:6; 엡1:13; 4:29; 5:6; 6:19; 빌1:14; 2:16; 4:15,17; 골1:5,25; 2:23; 3:16,17; 4:3,6; 살전1:5,6,8; 2:5,13; 4:15,18; 살후2:2,15,17; 3:1,14; 딤후1:15; 3:1; 4:5,6,9,12; 5:17; 6:3; 딤후1:13; 2:9,11,15,17; 4:2,15; 딤후1:3,9; 2:5,8; 3:8; 히2:2; 4:2,12,13; 5:11,13; 6:1; 7:28; 12:19; 13:7,17,22; 약1:18,21,22,23; 3:2; 벧전1:23; 2:8; 3:1,15; 4:5; 벧후1:19; 2:3; 3:5,7; 요일1:1,10; 2:5,7,14; 3:18; 요삼10; 유15; 계1:2,3,9; 3:8,10; 6:9; 12:11; 17:17; 19:9,13; 20:4; 21:5; 22:6,7,9,10,18,19; 6:9;
2. 로고스의 의미의 구분
위의 구절들에서 “로고스”가 지칭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쓰인 곳
마15:6; 막7:13; 눅5:1; 8:11,12,13,15,21; 11:28; 요5:38; 8:55; 10:35; 14:24; 15:3,20; 17:6,14,17,20; 행4:29,31; 6:2,4,7;

- 8:14; 10:36; 11:1; 12:24; 13:5,7; 13:44,46,48,49; 16:32; 17:13; 18:11; 롬9:6,9; 13:9; 고전14:36; 고후2:17; 4:2; 5:19; 6:7; 갈5:14; 빌1:14; 골1:25; 4:3; 살전2:13; 딤후4:5; 딤후2:9; 딤후1:3; 2:5; 히4:12,13; 7:28; 12:19; 13:7; 약1:18; 벧전1:23; 2:8; 벧후3:5,7; 요일2:14; 계1:2,9; 17:17; 19:9,13; 20:4.

- 2)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으로 쓰인 곳
마7:24,26,28; 8:8,16; 15:12,23; 19:1,11,22; 21:24; 24:35; 26:1,44; 막1:45; 2:2; 8:32,38; 9:10; 10:22,24; 11:29; 13:31; 14:39; 눅4:22,32,36; 5:15; 6:47; 7:7; 9:26,28,44; 10:39; 20:3,20; 21:33; 22:61; 24:19,44; 요2:22; 4:37; 요4:41,50; 5:24; 6:60; 7:36,40; 8:31,37; 8:43,51,52; 10:19; 12:48; 14:23,24; 18:9,32; 21:23; 행8:25; 14:3; 15:36; 19:10,20; 20:35; 롬15:18; 골3:16; 살전1:8; 4:15; 살후3:1; 딤후6:3; 히6:1; 요일1:10; 2:5; 계3:8,10; 21:5; 22:6,7,9,10,18,19.

- 3) 예수님을 지칭하는 경우
요1:1, 14; 요일1:1; 계19:13.

- 4) 성령님의 말씀의 뜻으로 쓰인 경우
고전2:13.

- 5) 복음의 뜻으로 쓰인 곳
1 3 : 1 9 , 2 0 , 2 1 , 2 2 , 2 3 ; 4:14,\*15,16,17,18,19,20,33; 막16:20; 눅1:24; 행1:1; 8:4,21; 10:44; 11:19; 13:26; 14:25; 15:7; 16:6; 17:11; 18:5; 20:32; 고전1:18; 12:\*8; 15:2; 갈6:6; 엡1:13; 6:19; 빌2:16; 4:15; 골1:5; 4:3; 살전1:6; 4:18; 딤후1:15; 3:1; 4:6,9; 딤후1:13; 2:11,15; 4:2; 딤후1:9; 3:8; 히4:2; 5:11,13; 13:17,22; 약1:21,22,23; 벧전3:1,15; 요일2:7.

- 6) 천사의 말의 뜻으로 쓰인 곳
눅1:20,29; 히2:2.

- 7) 선지자의 말의 뜻으로 쓰인 곳
눅3:4; 요12:38; 15:25; 행15:15; 롬9:28; 고전15:54; 벧후1:19; 계1:3.

- 8)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의 뜻으로 쓰인 곳
요17:20; 행2:22,40,41; 4:4; 5:5,24; 6:5; 13:15; 14:12; 20:2,7; 22:22; 고전2:4; 14:19; 고후1:18; 살전1:5; 살후2:15; 3:14; 계12:11.

- 9) 인간의 말의 뜻으로 쓰인 곳
마5:37; 10:14; 12:32,36,\*37;

- 22:15,46; 5:36; 막7:29; 12:13; 눅12:10; 23:9; 24:17; 요4:39; 19:8,13; 행7:22,29; 15:24,27,32; 16:36; 18:14,15; 20:38; 롬3:4; 14:12; 고전1:5,17; 2:1,4,13; 4:19,20; \*14:19; 고후8:7; 10:10,11; 11:6; 엡4:29; 5:6; 골2:23; 3:17; 4:6; 살전1:5; 2:5,13; 살후2:17; 딤후4:12; 5:17; 딤후2:17; 4:15; 딤후2:8; 약3:2; 벧전3:1; 4:5; 벧후2:3; 요일3:18; 요삼10; 유15.

- 10) 기타의 의미로 쓰인 곳
마5:32; 18:23; 25:19; 28:15; 눅7:17; 16:2; 행1:1; 10:29; 11:22; 15:6; 19:38,40; 20:24; 롬14:12; 고전14:9; 빌4:15,17; 골2:23; 히4:13; 13:1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마”와 마찬가지로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말씀,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인간의 말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로고스”가 “레마”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10)기타의 의미로 쓰인 곳에 열거된 성경구절들이 그런 경우로 해당한다. 예를 들면 마5:32와 행10:29에서는 로고스가 “이유”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마18:23과 25:19에서는 “로고스”가 “결말짓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원아이로”(συναίρω)와 함께 사용되어 “셈하다” 또는 “청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의미이지만 눅16:2와 히13:17에서는 “로고스”가 동사 원아이로(συναίρω) 대신에 “주다”, “지불하다”, “상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아포디도미”(ἀποδιδέμι)와 결합하고 있다. 그리고 마28:15와 눅7:17와 행11:22에서는 “소문”이라는 뜻으로, 행15:6에서는 “일” 또는 “사건”이라는 뜻으로, 행19:38에서는 “소송”의 뜻으로, 행20:24에서는 “가치”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전14:19에서는 “로고스”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처음 것은 사람의 “말”을 의미하고 두 번째 것은 방언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다. 빌4:15에서는 “거래” 또는 “용무”라는 뜻으로, 빌5:17에서는 “유익”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골2:23에서는 표시(sign)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레마”가 “말” 또는 “말씀” 이외의 뜻으로 쓰인 예는 신약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구약 창34:14에서 “레마”가 “말”이라기보다는 “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이것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로고스”가 “레마”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범위도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인간의 가면과 진실

폴 투르니에 | 문예출판사

타인과의 참된 대화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만큼 진실한 가치를 지닌다. 위대한 정신상담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저자는 이같은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 의학을 실천하며, 의사가 환자와 참된 내면적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하라고 주장한다.



#### 제로의 기적

캐릴 스텐 | 프린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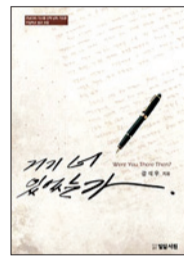
가족에게 닥친 시련을 멈출 방법이 없는 엄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열 살 소년, 내란과 지진으로 난민으로 전락하여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놀라운 사람들의 리얼 감동스토리.



#### 거기 너 있었는가?

강석우 | 말알서원

고등학교 교사와 주일학교 사역자로 오래 봉사한 저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기도문들과 주일학교 설교문들을 모았다. 수록된 기도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눈 깊은 묵상들이 담겨 있다.



#### 기도의 기적

이영훈 | 두란노

주기도문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상세히 설명해 준다. 제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도에 대한 궁금증도 풀릴 것이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들이 담겨 있다.



## REVIEW

### “로마서만큼 복음이 위대하게 드러난 책은 없다”

“로마서야말로 견고하고 내구성 강하고 믿을 만하고 흔들리지 않고 철저한 진리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하게 드러난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정수가 그대로 담긴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의 로마서 강해 시리즈(전 7권) 첫 책이다. 이 첫 책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40편의 설교가 담겨 있다. 파이퍼 목사는 로마서에 대해 “성경 가운데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집대성해 놓은 책”이라고 평가한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존 파이퍼 목사와 로마서와 사연이 깊다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듯 강해에 앞서 로마서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다. 여섯 살 때 회심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는 중직인 사역자가 되겠다는 부

르심이 마음 속에 깊이 박히고, 자신의 인생을 신학적으로 다지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기까지, 그의 텍스트는 늘 로마서였다. 그리고 자신이 18년간 목회할 수 있도록 지탱해준 말씀도 바로 그 말씀(롬 8:28, 32)이었다.

파이퍼 목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써 내려갔던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않고 신학처럼 자세하게 해설하면서도, 설교자답게 당시 21세기를 앞둔 성도들이 ‘로마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이슈에도 기울이지 않는다. 파이퍼 목사는 로마서의 전체, 넓게는 바울서신 전체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독자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던지면서 이에 답하고 있다.

그는 로마서 1장 16-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한다. 이 본문은 인생의 궁극적인 두 가지 관심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 존 파이퍼 | 좋은씨앗 | 544쪽 | 24,000원

루고 있다. ‘기독교 회락주의자’답게 존 파이퍼 목사는 “복음이야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점을 반복해서 역설한다.

1장 후반부터 계속 이어지는 ‘죄’에 대한 지적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각인시

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좀더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교자는 역설한다. 죄를 지적하는 본문은 철저히 캄캄(darkness)하고 칙칙하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꺼리지만, 그는 삼피로 병을 고칠 수 없다 삼피로 진노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보다 지혜롭게 한다 삼피로 진노의 속성을 알면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등의 근거를 들면서 확신 있게 이같은 설교를 몇 달간 밀고 나갔다.

이 모든 죄악들은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일어나는 결과물이다.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과 의 어지럽혀진 관계가 이성간의 연합이 무너지는 관계 속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질서 관계는 결혼의 언약 아래 이뤄지는 이성간의 연합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애뿐 아니라 인간의 성(性)적·사회적·신체적·감정적 등 모든 무질서들이 다를 바 없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부터 동성애의 ‘합법성’을 변호하려는 일부의 행태에는 본문은 근거로 단호히 선을 긋는다. 이후 2장과 3장 20절까지의 강해를 통해 ‘외모’가 아니라 ‘행한대로’ 차별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 위선과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논증한다. 파이퍼 목사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더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히 의지하는 감각으로서의 절망감, 그로 인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원의 기도,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숙고, 어린이와 어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며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시키는 교육 등이다.

“은혜는 로마서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입니다.”

이대웅 기자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高麗발효삼**

“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액츠 생명연구 개발”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퍼스트레이디**

“여성건강, 생리활성”  
“불가리아 장미오일 캡슐”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문의 : 213-383-8899**

www.sejongbiotech.us

**판매처**

코리아타운 세종바이오텍 엘에이지사 (월서와 버질길 복음방송2층, 213-383-8899)  
 거주건강종합백화점 (한남체인건너편 천중산상영, 213-388-1234)  
 비타민 아울렛 (아사마켓 건너편, 213-382-1252) 별문갤러리아약국(마켓내)213-388-4100  
 글렌데일 한국약국 (글렌데일 한국마켓 내, 818-637-7708)  
 세리토스 웰빙건강8선물 (세리토스 시온마켓내, 562-403-0282)  
 부에나팍 네이처영양센터 (부에나팍 한남체인내, 714-690-0120)  
 샌디에고 굿모닝약국 (레이시온로드 교차로 스티브스커피빌딩내, 858-268-1660)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 213.380.7800 /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목사의 「나이 드는 내가 좋다」

# “죽음은 진정한 삶의 시작이자, 하나님 나라 안의 삶”



저자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목사.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 관련 책들도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 브루더호프에서 아내와 함께 많은 이들을 상담하고 섬겨 온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목사가 쓴 <나이 드는 내가 좋다(Rich in Years·포이에마)>가 호평을 받고 있다. 그는 이미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용서, 치유를 위한 위대한 선택(이상 양철복)>, <아이들의 정원>, <바다 난 영혼(이상 달팽이)> 등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이기도 하다.

“나이 드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괜찮다”,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법”, “고통을 이겨내면 가슴이 넓어진다” 등 노년층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극복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조언들을 담백하게 풀어내고 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면 육체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을 이길 기회를 얻는다”는 저자는 “나 역시 이 세상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대신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한다. 다음은 브루더호프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번역자(원마루 형제)의 도움으로 진행한 저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나이 드는 내가 좋다>를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48년째 접어들면서, 지금이야말로 ‘나이 들에 관해 생각하고 탐색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동료 노인 분들께 용기를 드릴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죽음 이후 천국에 가게 될 테니 마땅하고 당연하게 기뻐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포도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안에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덮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교회에 노년층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데, 교회는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70세를 은퇴 연령으로 규정해 이후에는 ‘뒷방 늙은이’ 처럼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을 존경하는 점에서, 한국은 아주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노인도 잊혀져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공동체를 위해 여러 해 동안 일하셨다는 사실을, 비록 지금은 그들의 몸이 쇠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사회에 줄 것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국도 이제 ‘100세 시대’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론상으로도 아직 ‘30여년’ 남은 이들에게 교회에서 사역이나 역할을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100세까지 사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대단한 육체적·정신적 비용을 치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꿈을 품지는 않습니다. 삶은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사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 1백 년 넘게 산 이들보다 더 큰 유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알고 지난 특권을 누렸는데,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그분의 말씀을 즐겨 인용합니다. 킹 목사는 39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지만,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계속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다. 장수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분은 제가 산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가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약속의 땅에 닿고 말거라고요!(마지막 연설 ‘나는 산의 정상에 올랐다(1968년)’에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책에 쓰셨듯 그들이 ‘어린 이 같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육체적으로는 결코 어린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돌보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위해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치매에 걸린 이를 돌보게 하십시오. 공허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치매에 걸린 이와 함께 지내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내 모든 것을 이해하는구나’ 하고 느낄 때, 그들의 사랑을 받는 일만큼 맛지고 보람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108-109쪽).”

-교육에 대한 저서를 많이 남기신 것으로 압니다. 요즘 한국에선 부모의 역할이 때문에 (외)조부모가 손주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손주를 믿음으로 이끌어 키우시는 조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 임무는 부모의 몫입니다. 만약 부모가 이를 놓친다면,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을 주는 일을 놓치는 것일지 모릅니다. 바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오는 11월 1일 발간될 어린이에 대한 책(어린 시절 구하기(Saving childhood))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드리길 희망합니다.”



나이 드는 내가 좋다 |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 포이에마 | 199쪽

-목사님의 부친께서 쓰셨던 <공동체 제자도(홍성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동체’가 ‘나이 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삶을 통해 ‘나이 들’이 제자도에 미치는 의미나 영향이 달라지는지요.

“나이 드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나이 든 사람에서부터 가장 어린 사람까지,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와 대책에 대해, 노년에 자기 일이나 취미를 새롭게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를 노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노년을 준비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섬김의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하는 작은 친절할 행위가 그런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주는 물 한 잔도 후한 보상을 받기 마련

입니다.”

-젊은이나 중년층도 목사님의 책이나 이 인터뷰 기사를 읽을 텐데, 그들에게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노년층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 중 최악은 ‘노년’이라는 문제를 아주 나중의 일이라 생각하고 미루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일은 그게 긍정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중에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여행은 아주 짧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마다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아쉬워하면서도 더는 그렇게 못 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목사님도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시고 싶은 일이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물론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진정한 삶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1장에 쓴 대로 ‘영원을 바라보며 살면 육체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을 이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끝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민족이 분단된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군사적 충돌이라는 두려움 속에 사는 일은 분명 큰 부담일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에 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긋하여 허리가 아픈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닦!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장애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페인팅 (PAINTING)

##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있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 치우차우만두

- 찰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울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되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 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 win 원현대 칼슨 HYUNDAI

## "Grand Opening Sale"

• 그랜드 오픈 기간에만 특별가 제공 •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15,000 스퀘어 피트 뉴쇼룸 오픈

브로커 환영



ashin@winhyundaicarson.com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달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고객사랑 앵콜 대세일!

100% 천연 물질이면서 미국 FDA에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된 암치료제 미라팜-22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의 쾌거에 대한 보답으로 HQ구연산을 사상 최저가로 한 달간 세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HQ구연산의 명성이 여실히 드러난 폭발적인 성원이었습니다.**  
더 많은 고객분들의 아우성으로 인하여 **재차 앵콜세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HQ구연산을 성원하는지는 300만명의 판매 기록 실적이 증거하겠지만 식탁에 꼭 비치해 놓으시고 매번 식사 때마다 챙겨 드시면 음식의 영양분들이 완전 소화 흡수가 되어 건강 장수하시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10병

프로모션 A

~~\$360~~ **\$100** No Tax

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프로모션 B

~~\$360~~ **\$100** No Tax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8병

프로모션 C

~~\$360~~ **\$100** No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물질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땀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거나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앓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찌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옴.
  - ★쌀이나 아재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안이 되었다.

###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내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사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8th St. Western Ave.  
로데오 갤러리아 (로데오갤러리아 아주관광 물내)

## HQ 헬스, Inc. / HQ 바이오텍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www.phhyundai.com

# 푸엔테힐즈 현대 SUPER STORE MARCH SPECIAL

푸엔테힐즈 현대가 드리는 놀라운 혜택!  
지금 만나보세요!

New!

100대가 넘는  
2013년식  
신형 차량 보유



## 2013 SONATA HYBRID LIMITED

Model# G0432F4S

MSRP: \$31,540. 36 months lease \$2,999 due at lease signing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500 boost up cash.

**\$1999** +TAX

New!



## 2013 GENESIS SEDAN (TECHNOLOGY PKG) \$2799 +TAX

Stock# DU249043, DU247931, DU242510

MSRP: \$44,575. 36 months lease \$7,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500 boost up cash.

New!



## 2013 SANTA FE SPORT 2.0T (LEATHER & PREMIUM EQUIPMENT PACKAG) \$2999 +TAX

Stock# 83072

MSRP: \$31,725. 36 months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k miles/year. \$1000 retail bonus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Boost up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 USED CAR

EH870276A 2010 ACURA TL \$21,500	34945 2011 EQUUS \$37,900	108167A 2011 INFINITI G37 \$20,900	EU078343A 2008 MERCEDES BENZ E350 \$22,900	EU859790A 2007 MERCEDES BENZ G55 AMG \$78,888
--	---------------------------------	--	---	--

푸엔테힐즈현대에서 함께 일할 세일즈맨을 모집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P-H** 푸엔테힐즈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